

본 종단, 북한 불교도 연맹과 공식 접촉

지난 11월 25~29, 중국 북경서 회담... 순수 민간차원에서 대북관계 물꼬 터는 자리 마련

오랫동안 염원하던 북한 불교도 연맹과 본종과의 접촉이 성사되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통일원 인선 정사와 법장원 이종석 연구원은 중국불교협회의 방문을 겸하여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 부위원장 금산 황병준 선사, 동 연맹 평양시 위원회 부장 임성훈 선사, 연맹중앙위원회 책임지도원 연암 이규룡 스님 등 3명의 북한 대표와 향후 남북의 불교 발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의 회담에서 조선불교도 연맹측은 북한의 불교 현황과 연맹 조직, 그리고 불교문화재 복원에 대한 북한의 노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남북 불교도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통일에 있어 불교도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총지종이 앞장서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측 대표는 재가불교로서 밀교라는 독특한 종지를 받들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총지종의 발전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북한동포를 위한 구호품 보내기 운동과 북한동포들에게 앞장서 온 본종의 그간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본종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담에서 남북의 대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며 서로간의 이해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번 접촉에서는 향후 남북 불교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전해졌다. 특히 북한 불교문화재의 복원과 학술연구에 있어서의 본종의 동참을 유도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불교에 대한 본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것이 이번 접촉



▲ 지난 11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북한불교도연맹과 회담을 가졌다.

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종에서는 이번 접촉결과를 분석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내년 2,3월경 재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 6면)

북한동포의 겨울나기 지원물품 조달련에 전달



▲ 북한으로 보낼 의류들을 분류하고 있는 종단 교도들과 종무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을 수령자로 하는 북한동포 겨울나기 지원물품(돈테이너 1대분량 - 총4천여점)이 12월 15일 인천과 남포를 운항하는 선박회사 한성선박에 인도되었다. 이 물품은 12월 30일 인천을 출항하여 북측 적십자사를 통해 조선 불교도연맹측에 전달된다.

이에 앞서 조선불교도연맹은 서기장 심상진의 명의로 지난 11월 4일 '총지종 통일원장 총지회지수님 앞'으로 전 송한 서신에서 '어려해져 계속된 자연

재해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의 불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종단'에 감사를 표시, '새로운 2천년을 맞으며 귀종단과의 협력과 연대, 연합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희망'한다고 밝히고 '귀종단에서 어떠한 형식이나 방법으로든지 우리에 대한 지원을 한다 면 동포애적인 참 보시행으로 받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해왔다. (관련 전

문 6면)
이에 앞서 지난 11월 26일과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불교총지종 통일원 강재훈(정사), 이종석(법장원연구위원)과 조불련의 황병준(조불련 중앙위 부위원장), 임성훈(조불련 평양시 부장), 이규룡(조불련 책임지도원)이 남북 불교도 교류활성화에 대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우리 종단의 겨울나기물품지원에 개별종단차원의 지원으로서의 울겨움을 맞아 첫 번째로서 불교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tn 대표이사에 효강 법장원장 취임

지난 11월 24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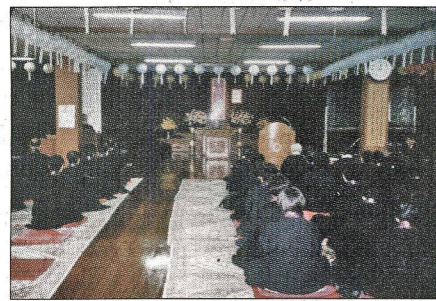


▲ 효강 신임 불교TV 사장

지난 24일 불교텔레비전 이사회에서 본 종단 효강 법장원장(불교TV이사)이 만장일치로 신임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관련기사 11면) 불교TV의 현안문제 수습을 위해 효강 신임 대표이사는 이튿날, 25일 곧바로 취임식을 가졌다.

추계 강공회 원만 회향

지난 10월 20일~22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강공회 개강식

제54회 추계 강공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본산 총지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공회는 전날인 19일에 원의회 및 재단 이사회의 예산안 심의가 있었고, 강공회 첫날인 20일에는 개강식을 시작으로 경강공, 중앙총의회, 둘째날의 경강공, 승단총회, 마지막날에는 열반스승

추선불사와 종강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특히 이번 강공회에서는 법장원 주관으로 '토사(土砂)가지불공'이 밀교의개에 따라 봉행되기도 했다. 또한 19일에 개최됐던 제91회 원의회 및 제 71회 재단이사회에서는 수인사 원봉 대정사, 수계사 해산 대정사, 관음사 수행원 대전수에 대한 2차 촉탁 연장근무를 의결하고, 실보사 해안 대정사, 삼밀사 의강 대정사, 백월사 사화화 대전수에 대한 1차 촉탁 근무도 함께 의결했으며, 동해중학교의 임기만료 이사 후임으로 지성 총무부장을 선출했다.

다시듣는 종조법설

밀교란 무엇인가?



▲ 종단 합성단 창립법회에서의 종조 원정 대성사

만다라의 기초지식 ①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만다라'라고 하는 의미도 한마디로는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미는 인도의 산

체가 되고, 피가 통하고 있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라 하겠다.

만다라에는 무량한 복지의 공덕이 취집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身)구(口)의(意)의 삼밀을 원만하게 지배하고 있다. 즉, 그 원만함은 우주간의 신체상 언어상 정신상의 모든 활동, 다시 우주 그것의 경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보리는 대일여래의 경지로 우주의 삼라만상의 구석 구석까지 대일여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우주 가 곧 대일여래의 자체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여래의 삼밀은 삼세(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사방에 편만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한

일체삼라만상 모두가 만다라

스크리트의 만다라를 한음(漢音)으로 음역(音譯)한 것이 '만다라'라고 한다. '만다'는 '본질', 또는 '심수(心髓)'라는 뜻, '라'는 '얻는다'는 해석으로서 '본질을 얻는다'. 다시말해서 '본질 그 자체', '일체제법을 구축한 것'이라는 오리(悟理)의 경지를 표현한 하나의 세계를 목전에 제시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주석에 의하면 '무상정등각의 본질'로서, '성취한 경지가 위 없고 우승(優勝)하고 순정(純正)한 것이며 평등원만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만다라는 평면이지만은 잘 들여다 보고 있으면 눈 앞에서 입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삼밀이 원만하다함은 만다라에 무수한 불보살이 시현되어 있음을 뜻한다. 만다라라고 하는 무대는 석존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특정한 좁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보리심)를 가지고 더욱 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세계이다.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 감각을 마음에 머물게 한 것이 자성만다라다. 자성(自性)이라함은 마음 속에 비장(秘藏)한 인간의 무한의 에너지이며, 깨달음이란 가장 순화된 이 에너지가 완전 연속될 때 일어나는 일탈(일탈)이며 그녀의 정적(靜寂)인 것이다.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여러분의 정성과 애정 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금주 : 불교방송

우)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 02-705-5560-1)

송년특집 12면 증면

광고접수 (02)508-8933

육군51사단 호국달마사와 자매결연



▲ 총지회 통일원장이 기증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종단과 경기도 화성군 소재 육군 제51사단(사단장 이희원 소장) 호국달마사(법사 정진권 중위)와 자매결연을 봉축하는 법회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종단 관계자, 합창단 및 수도군 단법사, 51사단 법사, 신도회장, 사단참모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달마사 법당에서 봉행되었다. 삼밀의계를 중심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총지회 통일원장은 설법을 통해 호국불교의 전통을 밀교적 의식으로 전승하고 있는 우리 종단과 호국달마사와의 결연은 군포교에 있어 대단히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진언을 영송함으로써 심신을 안정할 수 있고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맑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종단은 최전방의 육군 제7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 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하여 법회를 갖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군포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번 화성의 51사단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간 호국달마사는 문서작성 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무용 비품이 없어 같은 부대의 교회에서 일과시간 외에 허가를 얻고 빌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 종단에서 이번 자매결연법회에 앞서 컴퓨터 및 주변기와 TV, VTR, 세탁기 등을 기증하였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종단의 정기법회가 호국달마사 법당에서 열리는데 지난 11월 20일에는 법장

원장 효강님이 법문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경인교구소속 사원이 순차적으로 법회를 주관기로 하였다. 따라서 12월 18일에는 인천 정혜사원당의 지성님이 호국달마사를 방문, 법회를 주관했다.

호국달마사 현황

- △ 육군 제51보병사단은 경기도 화성군 원평리에 있는 부대로서 보병훈련과 군 병력 수송 주력부대.
- △ 훈련병 가운데 현역병은 6주, 공익근무요원은 4주의 훈련을 받고 각각 임무지로 배속되는데, 평균 현역병은 200명, 공익근무요원은 600명 정도가 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
- △ 법회참석자는 현역병 50~70명과 공익근무요원 120~140명 정도.
- △ 호국달마사는 그간 인근의 사찰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으나 법회운영에 인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경기남부 불교청년회의 일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자를 개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음.
- △ 이러한 소식을 듣고 지난 9월 12일 일요일 오후 본 종단 통일원장 총지회지수님이 호국달마사를 방문 법회를 하였고, 법회 후 군법사, 신도회장(중령 최태호 권리참모), 총무(준위, 수송관), 경기남부 불청회원 등과 대담을 나누면서 법당 운영의 어려움을 전해 들음.
- △ 지난 11월 16일 군 정경인사로 문명환소장이 사단장으로 취임.

해인사 정경스님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경 지음

좋은 생활습관과 바른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 그대로그가 완벽한 건강법이다. 우리의 잘못된 일상생활이 야기시킨 온전치 않은 인체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균형있는 순수한 기능으로 정상화 시켜준다.

참선요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혈액 순환 자극을 소멸한다.
- 내장 기능 활성화와 숙변을 완벽히 제거하고 방지한다.
- 호흡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치료, 예방한다.
- 척추 및 골격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개선한다.
- 탄력 있는 피부와 젊음을 유지시킨다.



책 : 신국판 280p 값 9,000원
비디오 : 54분 값 15,000원

* 하남출판사의 책은 전국서점 건강코너에 있습니다.

社 說

통일 터닥기의 첫발을 디디며

종단의 제일의 과제로 진호국가불사를 품고 있는 우리 종단이 진정한 자비와 화합의 손길로 겨레의 염원인 통일 터닥기를 시작하였다. 지난 11월부터 북측 불교도를 대표하는 조선불교도연맹의 서기장 심상진 명의로 된 서신이 오고 그에 대해 우리 종단의 총지화 총리원장이 화답하는 서신을 전송하면서 그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양측의 접촉에 가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서, 또한 우리 종단의 독자적인 교류차원에서 11월 하순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정식 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1988년 이후 남북한의 불교도 교류가 시작된 이래 양측의 교류는 서로간의 상당한 신뢰와 우호적인 교류로 발전하여 조계종과 진각종은 각각 대표급의 방북이라는, 실로 분단된 민족의 현실에 평할 수 없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장래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민족통일에 있어 크나큰 공덕을 이룬 것이다.

분단 반세기를 넘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그간 통일을 위해 분단된 조국강산에 자신의 몸을 바친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은 그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간 권위적인 정부 시절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악화된 적도 있었으나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과 군사정부를 대체하여 들어선 민간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으로 통일로 가는 길목이 상당히 넓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은 남북불교도간의 교류에 있어 상대적으로 종책적 배려가 소홀하였음은 숨길 수 없다. 자신을 성찰하는 포살정신은 불자로서의 덕목이라 할 때 뒤늦은 자성에 앞으로 보다 높은 관심과 종책 배려로 우리 종단과 북측불교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밀교적 전통이 생생하게 배어있는 고려 불교의 유적과 사찰을 복원하는 불사 등 남북불교도 교류의 목적을 뚜렷이 세워 그간 단순히 우호적 지원 차원의 교류가 갖는 한계를 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대북교류를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종단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베이징 접촉은 우리 종단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계기이며 동시에 과제로 주어졌던 것이기에 종단적 관심을 배가할 필요가 절실하다.

불교텔레비전을 생각한다

개국 이후 우리 종단의 각별한 후원을 비롯하여 불교계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불교텔레비전(비티엔)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단 비티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종합유선방송(케이블티브이)가 재정악화라는 어두운 굴에서 쫓겨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물론 당시 김영삼정부가 미공에 다가를 첨단영상시대에 대한 선부른 판단으로 케이블티브이 시장의 여건 조성도 없이 종합유선방송정책을 실행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단순히 난시청지역에 기존 공중파방송프로그램을 녹화 중계하던 영세 유선중계업자와 심한 마찰을 겪는 등 초기부터 난항을 거듭한 것이 케이블티브이였다.

물론 비티엔의 오늘이 순전히 정부정책의 잘못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자기합리화이기도 하다. 영상포교사업이라는 점에 들떠 초기 열화와 같은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경영과 방송 전문가의 빈틈없는 사업계획으로 뒷받침하였다면 오늘날 같이 나라에서 헤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석공은 얼굴을 조각하는데 있어 처음 돌을 다루는데 눈은 작게, 코는 크게, 한다고 한다. 즉, 다듬어 가면서 점차 크게 만들어야 할 부분은 작게 시작하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곳은 그 주변부터 정리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티엔은 그 반대로 초기부터 거대한 몸집으로, 막대한 시설투자로 불자들의 정성을 까먹었던 것이다. 프로그램공급업자로서의 비티엔은 그 주변에 소규모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포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했다. 우리나라가 아이엠에프의 원조금으로 국가부도사태를 간신히 모면하면서 빠져지게 절감한 것은 중소기업이 허약한 국가경제의 구조였던 것처럼 영상사업의 주변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간난신고를 겪으며 비티엔이 다시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새로운 경영체제가 들어서는데 우리 종단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은 필자의 사실이다. 그것은 순전히 첨단정보화시대에 있어 비티엔이야말로 어떤 경우든 영상포교의 불사에 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사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티엔의 새로운 경영체제를 맡은 대표이사과 임직원은 우리 종단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모두의 정성과 원력을 백척간두에 선 결연한 의지로 맞받아 회사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비티엔의 앞날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연한다.

이웃과 함께 정으로 훈훈한 겨울나기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역 생활보호대상에게 김장김치 전달



▲ 지난 4일 여익구 관장이 지역민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우리 종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여익구)는 지난 12월 4일 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15명이 김장을 담근 역삼재 생활보호대상자 22가구 26명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김장김치를 전하였다. 이날 담근 김장은 역삼2동 동회와 결연을 맺은 산지농민들이 신선한 채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배추, 무를 사용하여 더욱 맛과 의미를 담고 있다.

동장, 노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노인분들 40여 명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뤘다.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이기 위해 특별상을 제정 시상하였는데, 첫수상자로는 장수상에 이종호(남, 97세), 효부상에 윤덕수(여, 50세)님이 수상했다. 특히 효부상을 수상한 윤덕수님은 중풍으로 전혀 거동을 못하는 시어머니를 15년째 수발하여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부상으로 스웨터가 주어졌다.

종단 주관으로 티벳정부 각료 초청 강연회 개최



▲ 본산 총지사 3층 회관에서 티벳 내무장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국불교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 우리 종단이 티벳명정부의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총본산 총지사 3층 대강당에서 '평화를 향한 불교도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종단과 티벳명정부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 고양시의 흥국사에서 한차례 강연을 하였고, 불교방송의 특별 인터뷰, 국회 방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및 위덕대 강연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들은 입국 다음날 국회 방문과 오찬을 갖은 후 우리 종단을 방문하여 총리원장, 법장원장 등과 환담을 나누었고 이어 내무부

장관 체임이 '평화를 향한 불교도의 메시지' 주제강연을 하였다(강연요지 및 총리원장 인사 4면).

우리 종단은 이로부터 현재 티벳이 처하고 있는 민족적 어려움을 듣고 특히 전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존자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전해 들었다.

본산 총리원 2층에 있는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해숙교수)와 함께 주최한 이번 강연에는 한국-티벳친선협회, 티벳명정부후원단체, 일반인, 기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티벳의 현실을 경청하여 티벳의 자유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강연 후 우리 종단은 래방기념품을 전달하고 앞으로 양자간에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위원회 회의 성료

제2차 회의, 지난 10월 13일~15일 일본 경도에서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가 참여한 제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경도에서 열렸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3국 대표단은 불교교류위원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순례단 및 수행체

합단의 상호방문을 결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3국이 매년 차례대로 개최됐다.

이번 경도회의의 한국측 대표로 본종의 총지화 총리원장, 효강 법장원장, 선도원 재무부장 등 한국불교 각 종단 대표자와 종진 승직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14일 분회회에서 효강 법장원장은 한중일 삼국의 '통일



▲ 기념법회에 참석한 총지화 총리원장, 효강 법장원장과 삼국불교계 지도자

법요문 시안'을 마련, 삼국이 참석하는 서울에서 '세계평화와 복지구현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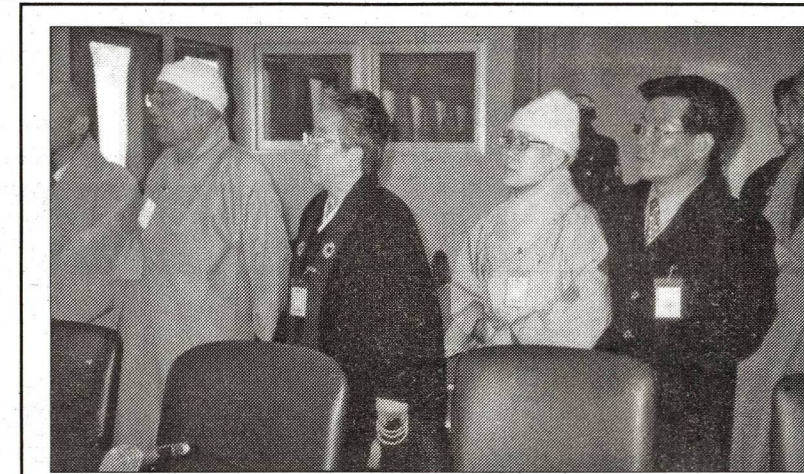
제안했다. 한편, 내년 제3차 대회는

종립 동해중학교장에 강경중 선생 임명

본종 종립학교인 부산의 동해중학교 신임교장에 강경중 선생이 임명되었다. <관련 프로필 11면>

강경중 교장은 뛰어난 행정능력 이외에도 불심 가득한 불자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밀교와 인연이 깊었으며 동래고등학교와 성균관대를 거치면서 항상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 왔다. ROTC장교와 공무원 생활

을 거쳐 교육계에 몸 담으면서도 불심을 잃지 않고 포교활동에 이바지했고 각종 불교 신학단체를 조직하여 이끌어왔으며 또한 법사이며 포교사로서 불교의 흥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한 것이 인정되어 재단으로부터 이번 신임교장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1월 3일, 문화관광부 초청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표자들이 판문점을 시찰했다. 이날 시찰에는 본 종 총지화 총리원장, 지성 총무부장, 선도원 재무부장, 인선 총무계장 등이 참석했다.

스승 법계 품수

지난 10월 1일자로 3명의 스승님이 행위(行位)와 법계지명(法階職名)을 품수받았다. 경주 국공사 법성 대정사가 출세간위의 종사, 법천사 원만

원 대인사와 실지사 선도원(재무부장) 대인사가 청정지 전수의 법계를 각각 품수받았다.

종보제작 총리원에서 맡기로

본종은 앞으로 총지종보 제작을 총리원에서 맡기로 했다. 또 발행인을 총지화 총리원장으로 변경키로 하고 문화관광부에 정기간행물등록 변경을 신청했다.

그동안 종보제작을 법장원에서 맡아 왔으나, 종단관련 기사 수집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나 종단홍보 책임부서로서 홍보장구의 일원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총리원 사회부에서

종보제작을 맡기로 했다. 이와함께 편집장 맡아왔던 법장원 김홍배 연구원은 편집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특히 김홍배 편집장은 그동안 종보제작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편집장 교체는 법장원 연구원을 법장원 교구의 연구 분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종 사회복지재단 임시 이사회개회

'역삼노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자 변경 내년도 예산심의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안효강) 임시 이사회가 지난 11월 12일 오후 2시 본 법인 이사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수탁자 변경건, 재단 사무국 구성 및 운영건, 노인복지센터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복지법인설립에 따라 앞으로 본종 복지재단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았던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내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 담당키로 하고 강남구청과 재계약을 맺기로 하였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12월중 임시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최종 결정키로 하였다.

내년도 예산 40억 4천만원 확정

원의회·중앙총의회에서 의결, 포교·종단홍보에 역점

내년도 예산이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개최된 원의회와 중앙총의회에서 총 40억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주요사업은 어린이·청소년 법회 활성화, 종단홍보물 제작(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 책자 제작 등), 찬불가 CD제작, 신규종무원 채용, 사원신속 및 총본산 개수공사 등이다. 특히 총본산의 경우는 현재의 3층 총지회관을 서원당으로 개수하고,

현 2층 서원당을 예식장 및 각종 회의실 등 다목적용 회관으로 개수할 예정이다. 또한 종조관을 신설하여 종조님 관련 각종 자료와 유품 등을 전시 보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외에 내년에 있을 주요 종무 일정으로는 2월의 종령추대와 10월의 총리원장 선거 일정등을 확정했다.

구 독 신 청 (02) 552-1080~3
기 사 제 보 전화/ (02) 508-8933 전송/ (02) 552-1082
 홈페이지 www.chongji.or.kr

동 정

[총지화 총리원장]
 · 총지화 총리원장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불교TV임시주주총회에 이사회장으로 참석했다.
 · 지난 12월 1일, 본종 총리원장실에서 주양자 전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 지난 11월 30일, 문화관광부장관 초청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대표자의 판문점 시찰을 다녀왔다.
 · 지난 11월 23일 국방부 호국사 법장에서 봉행된 군순단 창립31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했다.
 · 지난 11월 16일 여성불자연합회가 '미래지향적 남녀평등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19층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효강 법장원장]
 · 효강 법장원장 겸 불교TV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불교TV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 지난 12월 8일 백상기념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포교원건립기금마련을 위한 불교사회헌' 개원식에 참석했다.
 · 지난 12월 7일 오후 5시 대한불교진흥원 대법당에서 봉행된 불교인터넷TV 개국법회에 참석했다.
 · 지난 10월 1일 흥천의 총회중 연화사에서 봉행된 연화사 낙상법회에 참석했다.

◆ 인사발령
 · 법장원 김해경 교무: 사무직 종무원직을 면함(9월17일자)
 · 정각사 윤해령 교무: 사무직 종무원으로 정식발령(9월1일자)

◆ 결 혼
 · 대구 제석사 우승 정사님의 장남 도영군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글라타워명품 5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있었다.
 · 청주 혜정사 수증원 전수님의 장남 조형기군 결혼식이 지난 9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청주 농협에서 있었다.

밀교교리 4

성불의 해제 (4)



효강 법장원장

이번에는 더 나아가 육무의(六無畏)의 사상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원래 삼 겁은 소월(所越)의 망집에 대한 단혹(斷惑)의 분제(分齊)를 설한 것이다. 그리고 이 육무의(六無畏) 능월(能越)의 정심(淨心)편에서 단혹의 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환언하면 전

그런데 육무의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무의(無畏-Nirbhaaya)라는 말의 뜻이다. 원래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공포(恐怖)없는 심적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위 안온(安穩) 안주(安住)의 경지를 말하며 결국 종교적 안심의 세계에 명명한 것이다. 특히 밀

교의 본질은 필경 자기자신 죽어서 다시 자기자신에 소생하는데 있는 것이다. 작은 자기(自己), 소자기(小自己)를 부정함으로써 대자기(大自己)를 발견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자기자신을 고차적으로 지양함으로써 진아(眞我-진실한 자기)에 갱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 있어서 육무의라

보면, 첫째 선무의(善無畏)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도덕적 사상인선에 눈뜨게 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종래 오직 음식에만 사념(思念)하여 아무런 정신생활의 이상을 희구하지 아니하였던 자가 한 번 우연히 어떠한 기연(機緣)에 닿자마자 곧바로 인생의 이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고 오로지 인간도(人間道)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경지가 바로 이 선무의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른바 오계(五戒) 십선(十善) 등의 도덕적 선에 의하여 자심에 소식을 얻게 되는 경계인데 『대일경(大日經)』 주심품(住心品)에는 또한 팔심(八心)에 의하여 도덕생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언행인(眞言行人)의 행위에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삼밀수행(三密修行)에 눈뜨게 되는 위(位)에 해당되는 것이다.

육무의(六無畏)

- 스스로 진실한 자기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지는 대처해야할 번뇌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후자는 대처할 보리심에 대하여 설한 것이다. 그러면 육무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선무의(善無畏), 신무의(身無畏), 무아무의(無我無畏), 법무의(法無畏), 범무아무의(法無我無畏), 일체평등무의(一切平等無畏)를 말하는 것이다.

교에서는 무의를 소식(蘇息) 또는 소식처(蘇息處)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번뇌 때문에 일시 속박되어 정신적으로 거의 빈사상태에 있던 자(者)가 바로 본인의 보리심에 눈뜸으로 해서 점차로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하며 진실한 자기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생각컨대 원래 종

는 것은 스스로가 진실한 자기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육종(六種)으로 가정하여 분류한 것인데 무의를 소식(蘇息)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밀교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고 또한 타당한 견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육무의를 고찰해



총지화 통리원장

지난 호에서는 우리 종단의 진호 국가불사의게 가운데 하나인 '만다라관' (曼荼羅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법(觀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종자자를 관하며 중생 자신의 몸에 종자자를 포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 바 그것이 '종자포치법' (種子布置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종자포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종단에서 모든 불사를 마칠 때 행하는 '홍자오인' (字五印)도 일종의 종자포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언종자 '홍'은 '일체죄장과 액난을 최파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우리 종단의 모든 의례 말미에 아

강권을 하여 중생 자신의 몸 다섯 군데에 인(印)을 행하는 것입니다. 입(口)과 뜻(意)으로 '홍'을 관송하며, 오른 손으로 금강권을 하고, 이마, 그다음 왼쪽 어깨, 그다음 오른 쪽 어깨, 단전(丹田), 명문(命門) 순으로 인(印)을 행하는 것입니다. 종자포치법의 또다른 예로, 우리

만다라 소개 7

종자포치법은 종자만다라의 일종

우리 진언행자들은

매일 매일 종자만다라를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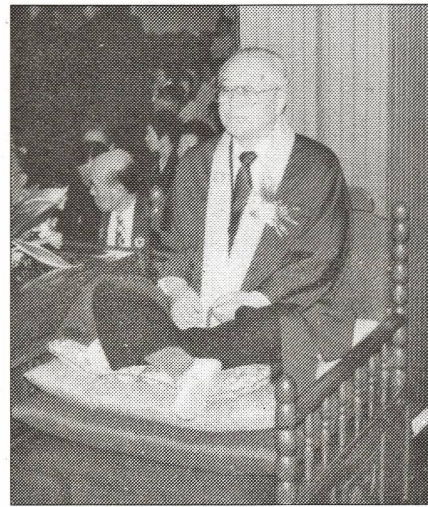
'종자포치법' (種子布置法)이란 불(佛)의 상징적 표상인 진언 종자자(眞言 種子字)를 중생 자신의 몸에 염(念)으로써 한 자 한 자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서 '종자포치법' (種子布置法)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불(佛)의 깨달음의 세계인 종자자를 중생이 자신의 몸에 지니므로써 중생 자신이 그대로 불(佛)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밀교의 독특한 수행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밀교가 가지는 특성

행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서원으로 실지정진에 들었던 모든 공덕행이 원만하게 회향되기를 바라며, 일체의 죄장과 액난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를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홍자오인'의 방법은 금강정좌(金剛正坐)를 한 후 왼손을 금강권(金剛拳)으로 하여 왼쪽 무릎 위에 놓고, 오른 손도 마찬가지로 금

강권을 하여 중생 자신의 몸 다섯 군데에 인(印)을 행하는 것입니다. 입(口)과 뜻(意)으로 '홍'을 관송하며, 오른 손으로 금강권을 하고, 이마, 그다음 왼쪽 어깨, 그다음 오른 쪽 어깨, 단전(丹田), 명문(命門) 순으로 인(印)을 행하는 것입니다. 종자포치법의 또다른 예로, 우리

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제진언인 『대승장엄보왕경』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 『칠구지불모심준제다라니법』 『칠구지독부법』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진언 한 자 한 자를 송할 때마다 이를 관하고, 또 몸의 각처에 포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자포치법은 종자만다라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도상(圖上)의 만다라는 아니지만 중생의 몸 그 자체에 종자를 놓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종자만다라의 도회(圖繪)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교종단의 염송법은 한 자 한 자를 관송하여 몸에 포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바로 만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진언행자들은 자신의 몸 가운데 매일 매일 만다라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교절 종령법어



▲ 법회에 참석하신 종령 특경대중사

12월 24일, 창교절 27주년을 맞아 특정 대중사님으로부터 창교절 특별법어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창교절의 종지를 받들며 불철주야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시는 전국의 승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창교절이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는 전국의 교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교절이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자 개산한 지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경대중사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승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단도 이제는 긴 잠에서 깨어나 창종 당시의 열화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고 참 대승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승직자 여러분은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하시라도 잊지 말고 뼈를 깎는 정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불교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불교가 내덕을 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단에 의지하여나 하나만의 안일만을 꾀한다면 무간지옥의 업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 교도들 또한 밀법의 수승한 종지

창종당시의 열화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

념과 신명을 바쳐 교화에 전념했던 선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종단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승직자 및 종무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창교절에 무한한 애착과 열의를 가지고 종지를 받들어 주신 교도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창종 이후 어느덧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간난신고를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합심과 단결로써 헤쳐오면서도 흔들림 없는 종지로 우리의 창교절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비숙한 시기에 창종했으면서도 훨씬 더 큰 교세를 자랑하는 종단도 더러 있습니다. 세계에 발돋움할 웅대한 종단을 만들어 세계만방에 밀교의 수승한 법을 펼치려고 한 종조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감이 들어 한 종단을 이끄는 종령으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에 몸뚱이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로 여기고 더욱 노력 정진

를 받들어 흔들림없는 신심으로 더욱 용맹정진해야 할 것이며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삶의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있을 스승의 사소 한 허물엔 연연해 하지 말고 스승이 더욱 바른 길로 가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교도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참된 보살의 길이며 복업을 쌓는 지름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수행은 게을리 한 채 공덕만을 바라는 어리석음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밀교는 가르침대로 따라가지만 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신심으로 더욱 용맹정진할 때에 자신의 해탈은 물론 불국정토의 구현도 앞당겨질 것이며 아울러 우리 창교절도 더욱 건실한 종단이 되어 교도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사가 함께하시어 무한한 복덕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총지 28년 12월 24일
종령 특경 합장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최근 출판가에 가서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중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몸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현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나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

티벳 내무장관 초청강연회에 부쳐...

초청강연회 인사말

총지화 통리원장

우선 인사 말씀에 앞서 삼가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와 그 넓은 광명에 합장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불교총지종의 본산을 방문하여 특별히 '평화를 향한 불교도의 메시지'를 전하실 티벳 정부의 내무장관과 티벳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대단히 큰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제가

대전에 있는 우리 종단 사원 만보사 주교로 있을 당시 티벳의 사추리포체 존자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세 계인의 승양을 받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존자께서 친필로 쓰신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티벳 정부의 주요인사를 모시게 되어 새삼 '인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현재 티벳은 민족적으로 대단히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탓에 자주적인 주권행사가 봉쇄되어 있으며,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 지도자 한 분은 중국정부에 감금되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도 지난 시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쓰라린 역사를 안고 있어 티벳인들의 현실에 더없이 공감하게 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우리 한국인에게 따뜻한 형제애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분단된 우리 겨레의 아픔에 동사심의 진지한 심정을 전하며,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전세계인의 평화를 위한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상이 겪고 있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한 티벳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불교계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로서도 귀한 손님입니다. 우리 정

부는 티벳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국제관계라는 정치적 고려를 무시할 수 없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자, 나아가 한국인 모두가 진실로 티벳의 아픔이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특별강연회의 인연으로 우리 종단은 물론 한국불교계와 티벳의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머지 않아 달라이라마 존자의 한국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종단은 최선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과 가르침을 전승하고 계신 티벳의 모든 분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큰 빛이 가득하길 합장 기원합니다.

성도하십시오.



육바라밀의 실천과 생활화 10

법공 (만보사 주교)

정계(淨戒-지계持戒) 바라밀다품

육바라밀(六波羅密)은 비유컨대 성불을 향하기는 여섯 단계라 볼 때, 그 두 번째 단계가 지계(持戒)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말씀드린 '보시바라밀다품'을 그 정도로 마감하고 이번호부터는 정계(淨戒)바라밀다품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1. 계행은(戒行)

모든 선(善)의 기초(基礎)

『무생계경』에 부처님께서 금강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계행은 천 가지 성(聖)스러움을 이루는 땅이며 만 가지 착한 것을 이루는 터전이다. 터전을 닦지 않고 어찌 성스러움과 착함을 세울 수 있겠는가. 모래를 아무리 쌓여도 밥이 되지 못하고, 풍에서 향을 구하면 마침내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문자 지킬 사미 10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고 대승행(大乘行)을 닦는 보살이 지켜야 할 십중금계(十重禁戒)가 있으며 대소승 및 승속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48경계(戒條)가 있으며 그밖에도 무수한 대소경중(大小輕重)의 계율들이 있습니다만 무릇 계율의 근본 뜻은 지악(止惡) 행선(行善) 즉 중생들이 직,maRit 물라꾼거나 혹은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행했던 나쁜 생각 나쁜 습관(버릇)을 버리고 좋은 생각 착한 행동으로 고쳐 나가는 데 매우 유익한 가르침이 곧 계율이니 만만치 않으니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노력을 할 때 악업(惡業)은 차츰 멀어지고 선업(善業)은 날로 쌓여가는 요긴한 삶의 법칙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율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사

계행은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

고해(苦海)를 건너려면 자비의 배를 타야하고 어두운 거리를 가려면 지혜의 횃불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일체중생이 계(戒)를 받아 지키지 아니하고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함은 되는 법이 없는 것이니 계는 모든 중생이 마땅히 받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율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의한 혜안(慧眼)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지키고 받들어 가짐으로써 자신을 비롯하여 관계되는 일체중생들과 더불어 매우 깊고 넓으며 또한 종류와 조목(條目)도 매우 많아 우리가 다 받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根機)와 처지에 따라 알맞게 받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융통하게 살피셨고, 또한 계율의 본의(本意)만 알고 보면 누구라도 능력껏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계율의 종류와 경중(輕重)

우선 자기가 지켜야 할 계율의 종류와 경중을 대강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대승계(大乘戒)와 소승계(小乘戒)가 있고 승속(僧俗)의 차별이 있으며 불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오계(根本五戒)를 비롯하여 출가사

람은 계율하면 출가승이나 무슨 도둑 타야하고 어두운 거리를 가려면 지혜의 횃불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일체중생이 계(戒)를 받아 지키지 아니하고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함은 되는 법이 없는 것이니 계는 모든 중생이 마땅히 받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3. 지계(持戒)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계행은 수지(受持)함은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얻음과 같고 또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열반한 후라도 계(戒)로써 스승을 삼고 계법(戒法)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남의 말대로 행한다면 비록 나와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내 곁에 있음과 같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항상 내 곁에 있다 해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음과 같"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 수행에 수핵(要點)이 되는 '삼학(三學)'의 첫번째가 계학(戒學)임을 보더라도 지계의 중요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계행은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 또한 중요성이 아닐까요?

생활 속의 권리 지킴이

개혁 지언으로 발목 잡히는 소비자 권리

가입 당시 말도 많았던 경제개발협력기구(오이씨디)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는 1996년이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국민소득 일만불이라는 거품성 수치와 함께 선진국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오이씨디는 통질적인 인식을 가진 회원국간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토의·협조 및 조정을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무역협정기구나 유럽공동체, 남미무역기구 등 주요 경제공동체와는 달리 강제성보다는 회원국들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해 오이씨디는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이 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 등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품책임법의 제정을 약속하였다. 이 제품책임법의 핵심은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자나 공급자가 책임지고 회수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조사, 확인의 책임이 생산자나 공급자에게 있다는 점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소비자단체들은 90년대초부터 이법의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고, 오이씨디가입 이후 정부는 더 이상 법제정을 지연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러나 기업의 강력한 압력으로 차일피일 그 제정이 미뤄졌다. 김대중정부에서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아놓고 2001년 10월부터 이법의 시행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2002년 7월로 연기하였다. 아직 국내기업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기업을 위해 소비자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허울좋은 구실만 내세워 개혁은 점점 뒷전으로 내모는 정치권의 수작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날이 언제인지 요원하지만

<계정·중립소비자보호위원회>

체행 티벳내무장관 강연오지

주제: 평화를 향한 불교도의 메세지

우선 한국 방문과 함께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교학자도 아니고 경전공부를 많이 한 승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첫번째로 불교에 대한 저의 생각, 둘째는 티벳의 불교에 대한 저의 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종교를 가지거나 혹은 가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을 원하고 불행은 멀리 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위해서는 자비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내생 그리고 업을 설명하며 전생의 인연으로 내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지만 욕심과 집착이 그 불성을 덮고 있어 그 집착과 욕심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하며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개인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타종교에서도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교의 교리가 가장 논리적이고 실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도 불교의 과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티벳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 5세기 전에는 티벳인들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며 국교로 정한 후 티벳인들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주위의 국가들에게도 불법을 호포하며, 적어도 1959년 중국이 티벳을 침략하기 전까지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중국이 티벳을 점령한 후 티벳 인구의 20%가 희생 당했고, 6000여 개의 사원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께서는 중국인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노스님이 중국 감옥에서 20년을

보내고 난 후 (티벳명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달람사라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중국인에 대한 자비심을 잃어버리고 적개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는 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달라이라마께서는 원수에게도 베풀 수 있는 자비심을 불교는 가르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티벳은 중국보다 인구가 작고 가진 것이라곤 '마니'(밀교법)의 일종, 전통기라고 하며 작은 원통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이를 손에 쥐고 돌리며

진언염송을 하는데 사용한다. '옴마니반메훔'이 새겨있다) 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티벳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벳인들은, 티벳의 독립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실천하는데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불교총지종 통리원장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의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방 티벳명명정부 주요인사

Table with 5 columns: Name, Birth Date, Origin, Address, Position. Includes Tswang C. Tethong, Tempa Tsering, Ven. Karma G. Yothok.

불교개설 8

12입처(十二入處)

정리: 대현(법장원 연구원)

12입처는 일반적으로 육근(六根)·육경(六境)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처(處)나 입(入) 또는 입처(入處) 등으로 번역된 āyatana는 감각기관을 뜻하는 indriya를 번역한 '근(根)'이나, 감각의 대상을 의미하는 viśaya를 번역한 '경(境)'과는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12입처를 육근과 육경을 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교설을 오해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육근 중에서 의근(意根)을 제외한 오근(五根)과 육경 중에서 법경(法境)을 제외한 오경(五境)은 색법(色法)인데, 십이입처(十二入處)는 모두 나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교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12입처 뿐만 아니라, 18계(界), 5온(蘊), 12연기설(緣起說) 등도 모두 마음에서 연기하는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교리이다.

6근과 6경은 석존 당시의 사상계(思想界)에서 인식기관과 그 대상의 의미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개념이지만,

12입처는 불교 특유의 개념으로서 『중아함경』에서는 이것을 석존의 자각법(自覺法)이라고 하고 있다.

범어 'āyatana'는 본래 '어떤 목적에 도달하여 들어가 머물게 된 장소'를 의미한다. 이 같은 본뜻에서 휴식처, 토대, 고향, 집, 거주처 등의 의미로 사용

주관이 6내입처(內入處)이며, 인식되는 대상은 6외입처(外入處)가 된다. 그러므로 12입처는 존재라는 허구적인 관념이 구성되는데 바탕이 되는 것으로, 아직 존재나 주객(主客)이나 내외(內外)가 분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중생들은 몸 안에서 자아가 있고, 몸 밖에

이와같이 자아와 세계는 12입처에서 집기(集起)하기 때문에 12입처는 중생과 중생들의 세계의 근원이 된다. 이 자아와 세계는 절대신이 창조한 것이거나 어떤 것이 변해서 된 것이거나 요소들이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12입처라는 우리의 허망한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다. 중생과 중생세계의 원인이 12입처이므로, 우리가 중생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2입처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6내입처는 보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를 나의 몸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며, 6외입처는 보이는 것에서 생각되는 것까지를 나의 몸 밖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므로, 12입처는 우리들의 망심(妄心)인 것이다.

요약하면, 12입처는 인식이 성립되기 이전의 인식의 두 가지 계기인데, 6내입처는 작용적 계기이고, 6외입처는 대상적 계기이다.

나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교리이다.

되며, 장소·영역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곧 어떤 것이 의존하고 있는 바탕이 되는 영역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감각적 지각의 토대가 되는 영역이다. 우리는 6근을 통해 6경을 지각한다고 생각하지만, 6근이 6경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으며, 접촉은 의식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하는

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같은 생각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는 것이 12입처이다. 곧 6내입처(안·이·비·설·신·의입처)가 모여서 몸 안에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6외입처(색·성·향·미·촉·법입처)가 모여서 몸 밖에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관정(灌頂), 비밀관정(秘密灌頂)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사제동행(師弟同行)으로 삼매야계(三昧耶戒)를 성취할 경우에 행하는 관정으로 마음 밖에 단장(壇場)을 만들지 않고 아사리의 마음 안에 만다라를 세우고 그 심단(心壇)에 들어가 관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정을 행하는 방식 관심(灌聖), 관정을 받는 것을 수관(受灌)이라 한다. 관정을 할 때 주는 인계(印契)와 다라니(陀羅尼)를 관정인명(灌頂印明)이라 하고, 관정 때 관정을 받는 사람의 재장(災障)을 없애고



수명관정 수계식에 참석한 총지종 교도들

일교용어소사전

관정

지안호에서는 관정에 크게 3가지(결연관정, 학법관정, 전법관정)가 있고, 그 가운데 전법관정에는 또 인법관정(印法灌頂), 사업관정(事業灌頂), 이심관정(以心灌頂)의 3가지 관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법관정(印法灌頂)은 비밀관정(秘密灌頂), 사업관정(事業灌頂), 이심관정(以心灌頂)이라고도 불리며 제자로서 성심(誠心)으로 진언행을 원하면서, 자

력(資力)이 부족하여 모든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스승이 자비심으로 그 심행(心行)을 관해서 모든 작업을 약하여 본존의 비인(秘印)을 베풀어 주고 관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관정(事業灌頂)은 작업관정(作業灌頂), 구지관정(具支灌頂)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선 제자로 하여금 7일 전부터 성심(誠心)으로 예배 참회시키고 승도 역시 7일간 불경(佛經)을 외우며 단(壇)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향화(香花)와 공양물을 갖춘 뒤에 비인(秘印)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력(資力)이 있는 제자를 위해 행하는 관정이라고 한다.

이심관정(以心灌頂)은 심수관정(心授

학술연구기관 탐방

동국대학교 부설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연구의 산실, '불교문화연구원'. 출범 당시에 '불교문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목정배 교수) 불교문화연구원을 찾아 한국불교연구의 원주소와 전망을 살펴보고, 본 연구원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토론이 있었다.

주요 사업 및 활동

개원 후 37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주듯 불교문화연구원은 의 활동은 각종 연구활동, 학술발표, 불서판찬 등 끊임없는 불사를 거듭해와 한국불교학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주요사업과 활동으로 먼저 학술연구서의 간행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학보'의 간행이다. 이 학보는 우리나라 불교학 연구의 체계화와 새로운 분야의 연구 개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논문집으로서 그 간행의 의의는 자못 큰 것이었다. 1963년에 창간호 제1집이 나오던 이어 이듬해 제2집이 발간되었고, 1994년까지 31집이 출간되었다. 불교학보는 현재 국내 각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 150여개소와 일본·중국·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 등 해외 대학연구기관 30여개소에 기증 및 자료교환 형식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우리 종단 법당원에도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또 교육부(당시는 문교부)의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호국대성 사명대사 연구', '불교의 국가·정치사상연구' 등이 그 성과물이다. 이외에도 '한국불교학술논문총록', '한국불교사료-해의문헌초집', '한국불교사상총서(전7권)', '한국불교(영문판)', '한국불교전적사전', '불교문화사상사개설' 등 수많은 연구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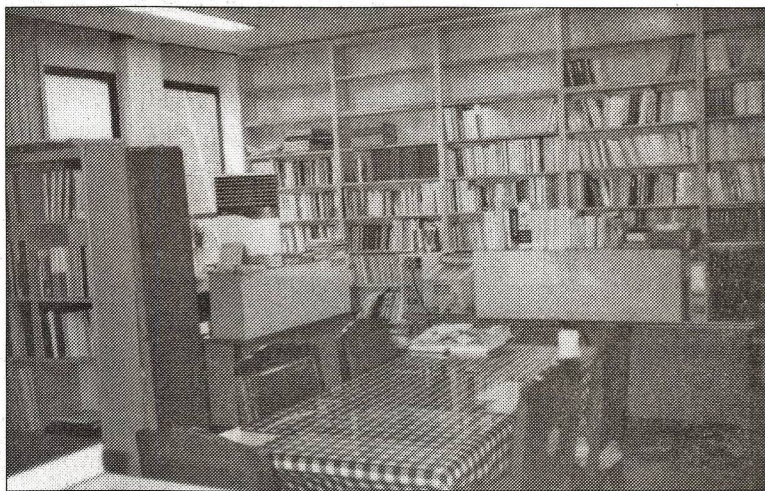
각종 학술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본 연구원이 창설된 1962년에 '고려사경전전시회'를 비롯하여 1968년까지 총 7회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사찰사료 및 문화재를 조사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했다. 감상회 전시회를 포함한 불교학술강연회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2~3회씩 실시하였다. 매년 계속해왔던 불교학술강연회는 1973년부터 그 형식을 학술세미나로 전환,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참여가 폭넓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개최해온 세미나의 연구발표 논문요지문을 모아 1994년 2월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와 불교』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각종 연구조비를 지원받아 범패 및 화청(和淸)조사와 녹음작업, 불교경관 조사 등의 연구활동도 펼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연구원문고'를 설치하고, '불교대사전', '한·영 불교사전',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역주' 등을 편찬·발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꾀하기도 했다.

'연구원'의 조직과 역대 연구소장 및 원장

불교문화연구원은 원장 아래에 3개의 위원회와 4개의 연구부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연구위원회', '저문위원회', '편집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연구부는 '불교고리연구부', '불교예술연구부', '조계종학연구부'로 편성되어 있다. 연



▲ 한국불교학의 메카 '불교문화연구원'의 연구실 전경

구부에는 연구원과 조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연구부에는 권탄준 연구원(화학학 전공, 동국대 철학박사 학위취득), 신성현 연구원(계열학 전공, 동국대 철학박사 학위취득), 최봉수 연구원(원시불교 전공, 동국대 철학박사 학위취득), 최중석 연구원(종교학 전공, 독일 자르브루켄 종교학박사 학위취득) 등이 근무하고 있다.

역대의 연구소장 및 원장으로는 조명기 박사, 김동화 박사, 장원규 박사, 홍정식 박사, 김운화 박사, 김영태 박사, 이재창 박사, 목정배 박사, 채인환 박사, 서운길 박사, 권기종 박사 등이 역임했으며, 현재는 목정배 박사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내년 2월, 『미래와 불교』 창간 계획

불교문화연구원 목정배 원장은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 2월, 불교 대중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적인 학술지에서 탈피,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대중적인 학술지를 표방하는 『미래와 불교』를 창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미래와 불교』는 사회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해답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사회 대중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불교문화연구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에 또다른 족적을 남기고자, 불교문화연구원 전 구성원들이 땀과 열정에 들어 있다.



현목의 세상읽기

말을 굳이 물고 늘어지는 까닭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실장

지난 초여름 복지관 직원 연수를 강원도 원주 근방에서 일박이일동안 가졌다. 우리 종단의 의식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고 복지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얘기하였다. 이튿날 점심은 끝으로 잡혀있던 연수일정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과 사찰 참배를 하였다. 사찰에서 내려오는 중에 산중턱 나무술 속에 박혀있는 꽃말을 보았다. 한 30미터에서도 글씨가 훤히 보였다. 그 꽃말에는 우리글로 '항공염시비지'라는 이리송한 문구가 새겨 있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혹 앞뒤에 빠진 글이 있는가 찾아보아도 없었다. 분명히 잘못 쓴 글은 아니었다.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인가. 그 글을 한자로 제멋대로 보았으나 영 종잡을 수 없었다. 함께 간 이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답은 없었다. 관리소에 물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어찌겠나.

얼마 전 교계 한 종단이 위탁한 제천 청소년수련원을 개관한다고 하여 축하도 할 겸 시설도 볼 겸하여 시간을 내서 가 본격이 있다. 그런데 수련원 뒷산에서 또 그 이리송한 문구를 보았다. 이번에는 '공염시비지역'이라고 했다. 아마 '항' 자는 지워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말의 뜻은 삼립보존을 위해 비행기로 나무에 영양분을 뿌려주는 지역이라는 뜻일 터이다. 굳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 쓰지 않는 까닭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하려면 글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 그렇다고 하여도 차라리 우리말로 풀어쓸 일이지 이거 무슨 자기들만 아는 암호 같아서야 공연히 사람 궁금중만 더하고 한발 더 나가면 그 '시비'가 '시비'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주변의 곳곳에서 아리송한 말들을 많이 보게 된다. 요즘에는 공사장에 '우리 현장은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있는데 이 또한 한참 무슨 뜻인가 궁리하게 만드는 말이다. 그냥 먼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시다 라고 하면 오죽 좋을까. 허구헌날 공사가 그칠 날이 없는 서울 사당동 근처에서는 말쑥한 땅을 뒤집는 공사가 한창인데 그 공사 명칭이 '지하함거설치공사'라고 써붙여 놓았다. 차를 타고 지나다 열핏 무슨 지하 운운하길래 지하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를 제거하는 공사가 했는데 거꾸로 암거를 설치한다니 의아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 도시 근처의 개천 썸썸을 구분하여 '준용하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이 말뜻을 모른다.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의 부정한 축재를 폭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드높이는 운동을 벌이는 한편 사법부와 국회에 대한 활발한 감시와 비판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시민운동단체가 있다. 나는 이 단체의 초창기에 운영위원으로 회의 때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했었다. 그런데 마번 회의 때마다 일종의 이질감을 느껴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요즘에는 그 단체에서 부쳐오는 회보, 언론의 보도 등으로만 단체의 사정을 전해듣고 있다. 회의에 사용하는 말들이 대략 무슨 패러다임이 어쨌다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니 휘슬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니 실로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사용하는 그 모습에 질려버렸다.

요즘에는 아이들 쓰는 말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다. 엄청 좋다는 말 대신 '울트라캡슐베리베리나이스군'이라고 하질 않나 여보세요를 '엄세요'로 바짝 줄여 말하는 바람에 못알아들어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유행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말을 제대로 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한쪽에서는 공연히 권위를 내세우려다 말을 어렵게 쓰고 한쪽에서는 저희들만 알아들도록 은어화된 말을 쓰는 풍토는 곧 사회가 그만큼 혼란하다는 반증이다.

확실히 우리사회는 말로써 망가지고 있다. 저희들끼리 음모를 꾸미다가 들롱나니까 서로 모함이니 조작이니 하는 말투나 그런 이들을 감싸느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녀사냥'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니 세상이 예사롭지 않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말은 이미 질질대로 질렸기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다.

바말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사회가 바르게 설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어찌된 일인지 가장 정확한 말을 써야할 방송인과 출연자들조차 엉망이다. 우스개짓과 소리로 먹고사는 희극배우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화가 곧 외국어 습득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는지 아직 우리말도 서툰 아이들에게 영어를 익히게 만들고 느닷없이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문서에 한자를 쓴다고 야단을 피니 여기서 어찌 제나라 제겨레의 주체성을 찾겠다. 그런 점에서 슬리퍼를 '폴신'이라는, 우리말을 이렇게 참신하게 고르고 다듬어 쓰는 북한사회의 주체만능을 배울만 하다 하겠다. 바라건대 우리말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바르게 써서 최소한의 민족적 자긍심을 굳게 지켜갔으면 좋겠다.

우리 고향 중의 고향
동국대학교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최후로 책임질 것을
책임 지려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모교여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여...

「미당 서정주의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여...
중에서」

동국에는 꿈이 있습니다

제3캠퍼스 컨팅계획

통일시대를 이끌 대학다운, 일산 자연과학 캠퍼스는 연구와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산·학 종합연구단지인 첨단 테크노 파크단지입니다.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795-2번지
- 부 지 면 적 - 248,536㎡ (75,181평)
- 건 축 개 요 - 건축연면적 : 117,697㎡ (35,666평)
- 사업진행현황 - 98. 1. 17 : 서울캠퍼스 일부 이전계획 교육부 승인 및 수도권 심의 통과
- 98. 7. 4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승인
- 99. 6. : 개발행위 신고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컨팅계획

양·한방 협진체제, 평생진료제도와 특진시스템, 인간화·첨단화·정보화된 21세기 열린 병원, 불교종합병원은 이천만민자의 염원입니다.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814번지
- 부 지 면 적 - 29,373㎡ (8,885.33평)
- 건 축 개 요 - 규 모 : 지하2층, 지상12층
- 총 1,000병상(양방 800병상, 한방 200병상)
- 건축연면적 : 89,752.63㎡ (27,150.17평)
- 사업진행현황 - 98. 2. 18 : 건축허가(고양시)
- 98. 5. 16 : 병원건립기공식
- 99. 8. : 설계완료
- 개 원 - 2003년 5월 부처님 오신날(예정)

동국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화보 결산 1999년! 종단 주요뉴스

발전과 도약의 한해 ...

새해 서원 대불공 정진

종단은 지난 1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간 '새해 서원 대불공 정진'을 봉행했다. 회향일인 1일에는 전국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사원마다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7시간 철야대정진 불공을 올렸다.

종조탄신 기념 범회봉행

종단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생 92주년을 기념하는 '종조탄생 기념범회'를 전국 각사에서 봉행했다.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탄생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본 종단은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에 앞서 종단은 지난 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역삼동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단계로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역삼복지 경로당 개원'과 함께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화합을 위한 새로운 출발! '부처님오신날' 행사

본 종단과 한국불교대표종단들은 지난 5월 16일 동대문운동장에서 화합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행사로 '부처님오신날'을 어느 해 보다 뜻깊고 의미있게 봉행했다.

종단 교도용 불사법요 개정출간, 소의경전 재역경 착수

종단 법장원은 지난 5월 10일, 2년간의 준비작업으로 교도용 '불사법요집'을 개정 출간했다. 또 '불교출판'과 '밀교장경'을 개정출간할 계획으로 소의경전 재번역 작업에 들어갔으며,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불교계 최초로 '밀교개론' 편찬작업에 들어갔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참석

종단 총지회 통리원장과 지성 총무부장, 선도원 재무부장, 인선 총무계장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천 칙지사에서 개최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석했다.

불교도 금강산순례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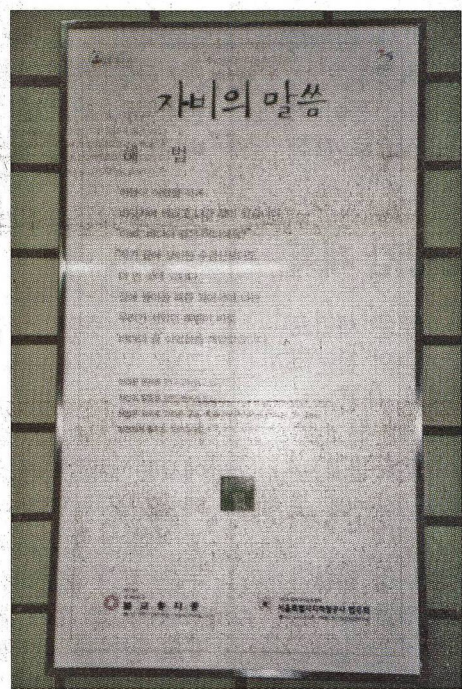
총지회 통리원장과 효강 법장원장, 혜정사 수증원, 백월사 사홍화 전수, 인선 정사, 단원사 이만혁 교도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종단협의회가 주관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에 동참했다.

부산 자석사 신축공사 착공

부산 자석사가 도심포교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사원신축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1일 신축에 들어간 자석사는 대지 620평, 건평 412평으로 짓게 된다.

여름 수련 법회, 다양하게 펼쳐지다

종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충북 괴산 본종 수련원에서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1, 2차로 나뉘어 열렸는데, 1차에는 전국 스승님 수련회, 2차에는 어린이 청소년 수련법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지하철 포교게시판 설치, 본 종단 후원 협찬

본 종단은 종단협의회 산하 풍경소리가 지하철역 구내에 포교용 게시판을 설치하는데 사업후원과 제작협찬기로 했다.



한중일 불교수호교류위원회 회의 참석

본 종단 총지회 통리원장과 효강 법장원장, 선도원 재무부장 등 한국불교 종단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경도에서 개최된 한중일 불교수호교류위원회에 참석하여 3국간 불교 우호 증진을 다졌다.



51사단 호국달마사와 결연

본 종단은 지난 10월 28일 51사단 호국달마사와 결연을 맺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호국달마사와의 결연으로 종단의 지원과 함께 새로운 군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매일 셋째주에는 종단에서 직접 법회를 봉행하고, 승단 스승님이 법문을 설하기로 했다.



승단 강경회 실시

종단 통리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본산 총지사에서 '제54회 추계 강경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경회에서는 밀교의 계수법에 따라 '토사가지불사'를 봉행하기도 했다.



토사가지불사 봉행

종단 법장원은 추계강경회 이틀째였던 지난 10월 21일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전국 스승님과 종무원,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토사가지불사'를 밀교의계수법에 따라 봉행했다.



티벳 내무장관 초청 강연회 개최

본 종단과 불교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지난 10월 25일 본산 총지사에서 '티벳 내무장관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불교TV 신임 사장에 '효강 법장원장'

지난 11월 24일 불교TV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종 효강 법장원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본 종은 불교TV 발기 이사종단으로, 개국때부터 영상포교에 참여해왔다.



남북한 불교도의 만남, 본종 북경회담 참석

종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한 불교회담'에 참석하여 남북한 불교교류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겨울나기 구호품 의류보내기에 우리 종단의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동포돕기 의류 전달

종단은 지난 12월 15일 북한동포돕기 구호품의류 4천여점을 북한으로 보내왔다. 의류는 인천항을 출항하여 북측 적십자를 통해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에 전달됐다.

신규종무원 채용 면접 실시

본 종 통리원은 '신규 및 경력 종무원 채용'을 계획하고 지원서 접수를 지난 12월 11일 마감했다.

<조선불교도연맹 발신 전문>

총지회 통리원장 총지회 지수님 앞

총리원장님과 귀종단의 법우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귀종단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희망한다는 점과 조국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서로의 협력과 면담, 편함을 도모해나가려는 취지로부터 오는 11월 28일 오후 3시 때이정희 대량화식당에서 만나자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는 귀족이 명분있게 우리와의 만남에 나오리라 믿고 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신은 진각종의 장지현성사님을 통해 보내도 될것입니다.

나부 서가모니불 합행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심상진
주최 88(1999)년 11월 10일

▲ 지난 11월 10일, 조선 불교도연맹에서 우리종단 총지회 통리원장 앞으로 보낸 서신 전문 내용.

중국북경 남북한회담

중국 북경의 남북한 불교도 회담을 다녀와서



세상에 태어나서 외국에 가본 것은 이번 중국방문이 처음이었다. 떠나기 며칠 전부터 북한측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는 걱정과 함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나였기에 이번 남북교류회의에 종단의 실무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마음에 크게 부담이 되었다.

11월 25일, 종단협의회 회의의 각 종단 대표자들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11월 26일 오후 6시에 각 종단 대표들과 조선불교도연맹과의 만찬약속이 정해짐에 따라 오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중국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불학원(佛學院)을 방문하여 리중 스님의 안내로 불학

원과 법원사 경내를 구경할 수 있었다. 150여명의 젊은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서 중국 불교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쁘고 또한 부러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6시, 북측에서 운영하는 해당 한 이념이나 체제도 존재하지 않아 참으로 좋았고 한뼘짜리라는 동포애를 느낄 수가 있었다. 공식일정 이틀남인 11월 27일에는 각 종단 대표들과 함께 중국불교협회 방문하여 장림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및 여러 스님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중국불교협회가 준

한 이념이나 체제도 존재하지 않아 참으로 좋았고 한뼘짜리라는 동포애를 느낄 수가 있었다. 공식일정 이틀남인 11월 27일에는 각 종단 대표들과 함께 중국불교협회 방문하여 장림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및 여러 스님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중국불교협회가 준

11월 28일에는 우리 총지종과 조 회식당에서 북한 불교인사들을 만났다. 평소 방송매체를 통해서나 보았던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불교협회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의류전달식을 갖고 난 뒤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만큼은 어떤

한 이념이나 체제도 존재하지 않아 참으로 좋았고 한뼘짜리라는 동포애를 느낄 수가 있었다. 공식일정 이틀남인 11월 27일에는 각 종단 대표들과 함께 중국불교협회 방문하여 장림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및 여러 스님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중국불교협회가 준

11월 28일에는 우리 총지종과 조 회식당에서 북한 불교인사들을 만났다. 평소 방송매체를 통해서나 보았던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불교협회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의류전달식을 갖고 난 뒤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만큼은 어떤

한 이념이나 체제도 존재하지 않아 참으로 좋았고 한뼘짜리라는 동포애를 느낄 수가 있었다. 공식일정 이틀남인 11월 27일에는 각 종단 대표들과 함께 중국불교협회 방문하여 장림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및 여러 스님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중국불교협회가 준

11월 28일에는 우리 총지종과 조 회식당에서 북한 불교인사들을 만났다. 평소 방송매체를 통해서나 보았던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불교협회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의류전달식을 갖고 난 뒤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만큼은 어떤

한 이념이나 체제도 존재하지 않아 참으로 좋았고 한뼘짜리라는 동포애를 느낄 수가 있었다. 공식일정 이틀남인 11월 27일에는 각 종단 대표들과 함께 중국불교협회 방문하여 장림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및 여러 스님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중국불교협회가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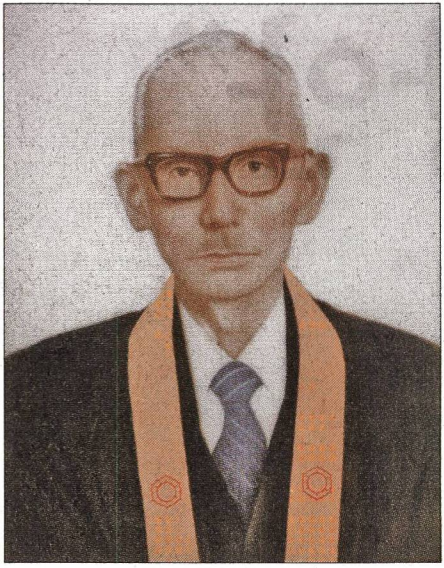
11월 28일에는 우리 총지종과 조 회식당에서 북한 불교인사들을 만났다. 평소 방송매체를 통해서나 보았던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불교협회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의류전달식을 갖고 난 뒤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만큼은 어떤

조국 평화 통일에 중추적 역할 다짐. 종단과 북한 및 중국과의 불교교류 기대

남북불교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총지종이 조국평화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단이 되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11월 28일에는 우리 총지종과 조

11월 29일, 돌아오면서 5일간의 북경생활을 정리해보니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므로써 나의 시야와 사고를 더욱 넓게 가질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흐뭇하였다. 남북불교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총지종이 조국평화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단이 되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11월 28일에는 우리 총지종과 조

사진으로 보는 20세기 종단사



종조 원정 대성사 탄생, 총지종 창종
원정 종조께서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에서 탄생하셨고,
1972년 12월 24일 밀교종흥을 위해 '총지종'을 창종하셨다.



총기7년(1978년) 1월 20일 총본산을 성북구 중암동에서 강남구
역산동으로 이전, 총기9년(1980년) 10월 28일 총본산 총지사신
축현공불사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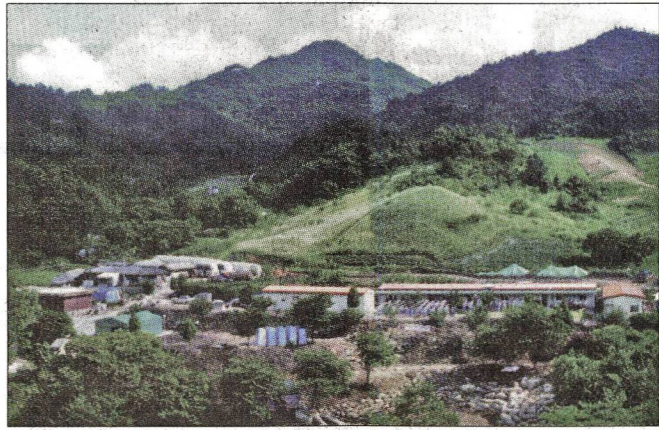
총기11년(1982년) 7월 16일, 부산경남교구 사원 스승님과 교도
들이 경남 밀양 남천강변에서 호국안민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총기12년(1983년) 12월 24일 본산내에 '밀교연구소'를 개원하
고, 84년 4월 20일 건물 준공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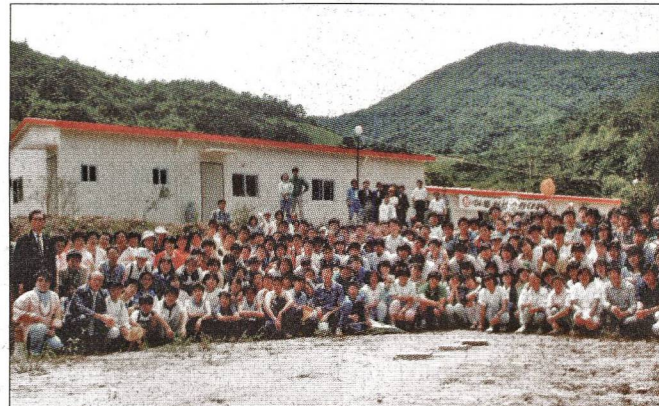
총기13년(1984년) 3월 12일 종립유치원 개원식을 역삼동 총본
산 경내에서 봉행했다.



총기13년(1984년) 12월 21일 총복 괴산 속리산 자락에 산림을
매입하여 종단 수련원을 건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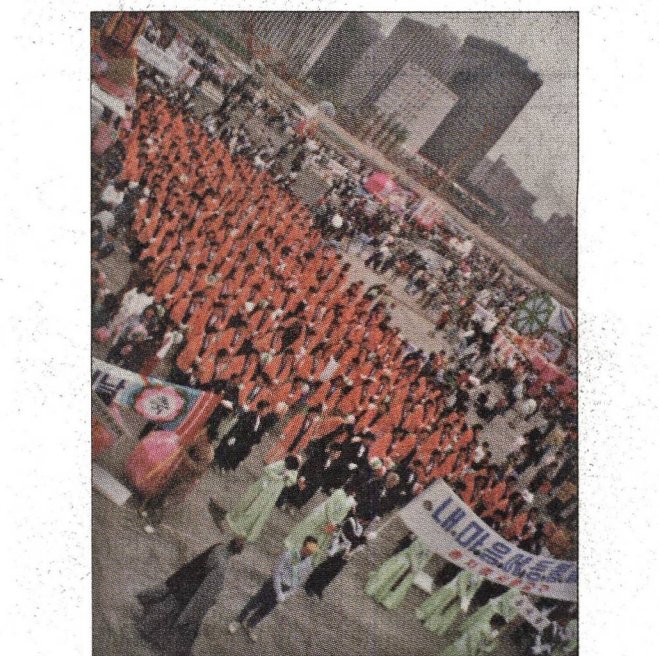
총기14년(1985년) 7월 16일 경남 하동 섬진강변에서 호국안민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총기17년(1988년) 7월 21일 괴산 수련원에서 제1회 학생수련법
회를 봉행했다.



총기18년(1989년) 대전 만보사신축 지진사를 봉행했다.



총기 19년(1990년) 4월 28일 여의도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
축대법회 '민족화합기원대법회'를 총지종 등 한국불교 대표종단
들이 함께 봉행했다.



총기21년(1992년) 3월 30일 성남시 하대원동에 기로원건립 지
진불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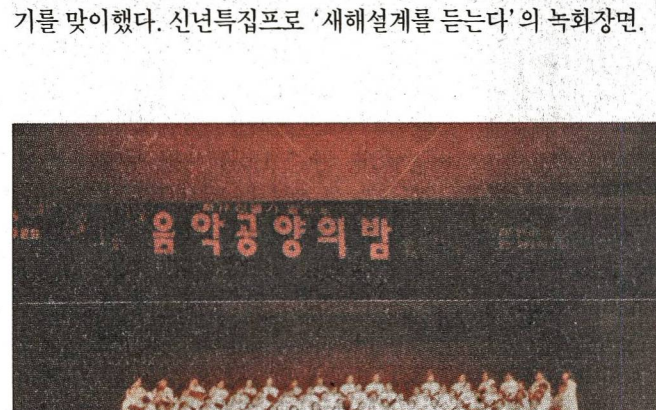
총기23년(1994년) 2월 17일 현 종령이신 특정 대종사께서 제6
대 종령으로 취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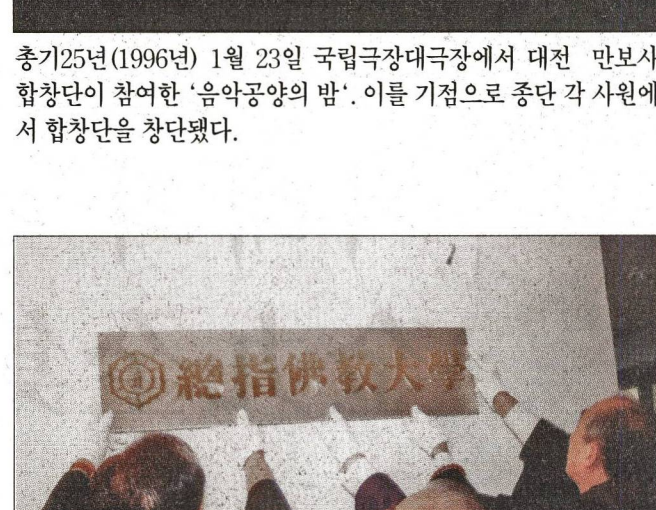
총기24년(1995년) 3월9일 세계최초로 불교TV개국을 맞이했다.
우리 종단은 발기이사종단으로 참여했다



총기25년(1996년) 1월 불교TV개국으로 영상포교의 새로운 진
기를 맞이했다. 신년특집프로 '새해설계를 듣는다'의 녹화장면.



총기25년(1996년) 1월 23일 국립극장대극장에서 대전 만보사
합창단이 참여한 '음악공양의 밤'. 이를 기점으로 종단 각 사원에
서 합창단을 창단했다.



총기25년(1996년) 4월. 총지불교대학을 개원했다.



총기25년(1996년) 7월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사회복지
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본종이 맡아 사무실개원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총기 25년(1996년) 9월11일 여의도광장에서 불교TV가 주최한
'불교문화대제전'에 본종이 참가, 정통밀교를 선보였다.



총기25년(1996년) 11월21일 대전 만보사에서 교도들을 대상으
로 한 '수명관정식'을 봉행했다



총기26년(1997년) 4월 17일 부산 정각사 신축현공불사를 봉행
했다.



총기26년(1997년) 4월 22일 인천 지인사 신축현공불사를 봉행
했다.



총기27년(1998년) 4월 16일 부산 삼밀사 신축현공불사를 봉행
했다.



총기27년(1998년) 9월 22일 부산 정각사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
회가 주관한 '국난극복기원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봉행했다.

송년특집 통리원 총무부·총지중보사 공동기획 - “사원건물양식 개선과 공간시설 활용”

“새로운 세기를 위한 포교방안”

도심포교를 위한 ‘사원 건물양식’ 개선과 ‘공간시설’ 활용방안 마련으로 내실있는 발전 도모...

1972년 종단이 창종된 이후 1999년까지, 28년간의 성장을 보낸 총지중!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종단의 크고 작은 불사와 수많은 법회와 불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밀교 대표종단으로써 제2의 밀교중흥기를 맞고 있는 불교 총지중!
지난 역사에 안주하기 보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더욱 발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포교방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이번호에서는 ‘도심포교를 위한 ‘사원 건물양식 개선’과 ‘공간 시설 활용’에 대해서 제언해본다.
<편집자주>

도심포교를 위한 ‘사원 건물양식 개선’과 ‘공간시설 활용’

원정 대성사께서는 일찍이 생활불교를 종단의 지표로 삼아 불교의 현대화에 노력하셨다. 그 가운데 산중불교에서 탈피,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사원을 시중에 두는 교화방편을 택하셨고, 불

까? 또 교화발전과 교세의 확장은 이루어졌을까?
물론 산술적인 계산으로 수적 증가만이 발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는 발전여부의 성적표 그



▲ 서예교실에서 붓글씨 연습을 하고 있는 총지사 교도들.

교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사원양식의 현대화에 노력하셨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대부분의 사원을 현대식 양옥건물로써 시중에 건립되어 있다.
창종 28년! 오늘날, 우리 종단은 과연 그 당시의 종단지표처럼 ‘생활불교’로서 ‘시중포교 도심포교’에 성공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즉 승직자의 수, 교도수, 사원의 수는 발전의 바로미터이다. 이들의 수치는 전연 무시될 수는 없다. 변화없는 제자리의 수는 발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다른 한편, 종단이 수적인 증가, 양적인 발전을 만족스럽게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대신 질적인 발전



▲ 부산지역 포교의 일면지 정각사 전경.

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세의 발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교세를 가능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건물양식의 현대화’와 함께 ‘종단 특유의 독특한 건물양식을 얼마만큼 갖추어 왔는지’, 그리고 ‘사원건물의 시설은 포교시설로써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종조님께서 ‘건물양식의 현대화’를 주창하셨는데, 굳이 ‘건물양식의 현대화’가 아니더라도 과연 전당(殿堂)과 경내를 대중 도심포교의 장으로서 제대로 활용하였는가?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포교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였는지를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미비했다면 무엇이 문제였으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포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1차적으로 ‘건물양식과 공간활용’에 대해 살펴보자. 사원의 건물은 먼저 포교의 장으로서 1차적인 수행처이기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상세한 검토분석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적 건물시설과 공간활용’은 앞으로 21세기 첨단사회의 포교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특히 사원건물을 아무리 현대식으로 건립했다하더라도 ‘시설과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교화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결국 퇴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종단의 미래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포교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종단의 사원건물’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여기에 타종단의 포교시설이나 건물, 특히 도심지에 있는 빌딩이나 현대식 건물형태의 사찰을 중심으로 ‘구조, 시설활용, 운영방식’ 등을 어떠한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원 건축양식과 내부구조, 포교시설과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본다.

첫째, 종단의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건물구조(철근 콘크리트, 벽돌조, 목조 등), 층수, 경관(연경관), 대지면적 등

의 기초적인 건물 현황이 포함된다.

둘째, 사원의 분포지역조사가 있어야 한다. 즉 사원의 분포지역이 도시인가 농촌지역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지역에 맞는 포교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사원건물의 공간활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야 한다. 층별과 시설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공간은 없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대책마련을 위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사원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포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그 실태를 파악해야 바람직한 포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청년회 등 신행기구 구성여부와 신행활동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가능토록 종단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유기적 활동이 가능토록 지도,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우리 종단 사원에 대한 실태 조사가 끝나면, 문제점을 적시하여 그 해결방안과 함께 개선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타종단의 포교 시설 현황을 참고로 하기 위한 기초조사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우리 종단의 사원이 도심에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비슷한 조건의 타 종교단체의 시설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시설 및 공간활용에 대한 조사분석이 중요하다. 사원건축양식, 내부구조, 층별 시설, 포교시설활용 등을 중점으로 분석되어야



▲ 총지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스승님들.

다섯째, 사원에 재직 중인 스승과 종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일이다. 재직 종사자수, 학력, 불교교리 습득유무, 지역주민과 주요인사·기관과의 유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사원과 종사자의 역량에 어울리는 포교방안 마련과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사원의 신도회, 자성학교, 학

할 것이다. 또한 운영방식은 어떠한지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포교 유무, 재직 종사자 인적사항, 신도회 및 기타 조직구성 여부와 활동사항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조사분석작업을 토대로 우리 종단 교우의 사원건물양식과 시설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례의 큰 스승 白凡의 사상과 삶 金九全集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白凡金九全集



白凡 金九全集 차례

- 1권: 친필『白凡逸志』·『屠倭實記』- 백범일지 친필본·직해본, 도예실기 중문판·한글판
- 2권: 『白凡逸志』 필사본들과 『屠倭實記』 국사원판 간행본 - 필사본 1, 2, 3
- 3권: 동학·의병운동, 안악·신민회 사건 - 판결문, 변역문 등
- 4권: 대한민국임시정부 I - 상해시기 이동시기
- 5권: 대한민국임시정부 II - 讀書類, 관련문건, 관련 중국측 문건
- 6권: 대한민국임시정부 III - 한국독립당 및 한국광복군 관련자료
- 7권: 대한민국임시정부 IV - 김구선생이 보내고 받은 간찰
- 8권: 건국·통일운동 - 신문자료, 김구 관련 주요자료, 인물기·약사·취재기·수행록
- 9권: 건국·통일운동(영문자료) - 기초자료, 정기보고서류, 전문·서신·문서자료
- 10권: 순국추모록 - 백범 서거와 장례식, 추도식
- 11권: 사진·회화 - 사진, 친필 회화, 친필 간찰류
- 12권: ‘암살’ 진상 - 신문보도 자료, 사진 관련자 주요 증언과 수기, 공공기록부 록 - 백범김구연보·연구논저 목록

·정가 60만원(12권 1질)
·구입문의: 02)721-5676-7, 02)721-5642-4

기획특집

불교계 남북교류 실태와 단체의 현황

글을 꾸미며

민족분단의 현실을 부여안고 조국평화통일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우리 종단은 매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통일을 위한 걸음에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게 사실이다. 불교계 다른 종단, 단체들은 이미 통일 이후의 과제까지 고려한 남북교류에 꾸준히 역량을 투입하여 많은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타종교권에서는, 특히 개신교의 경우 너무 지나치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도록 대북 접촉에 열을 올려 민족종교를 자처하는 불교계에 자극을 주고 있다.

실현 자체가 미지수였던 금강산관광이 이제는 화제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고 남한의 기업이 자본을 대고 북한의 노동력을 빌어 만든 제품이 다시 남한에서 팔리는 현실이다. 공식 비공식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남한정부는 오히려 독일통일과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북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불교계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단체는 한국불교종단협 산하기구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협회를 들 수 있으며 종단차원에서는 진각종이 단연 돋보이고 있다. 이밖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등이 있다. 이 단체는 남북교류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북한을 떠나 중국 등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는데 더 힘을 쏟고 있다.

올 11월 종단과 조불련 베이징 회담

우리 종단도 지난 11월 이후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서신교환과 베이징에서의 회담을 하면서 남북불교도 사이의 교류에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 우리의 서원에 비해, 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비해 상당히 늦었음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늦었다는 것이 곧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후발자로서의 장점을 살려 이미 앞서 남북교류, 민족통일운동을 벌였던 단체, 종단, 사람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보다 우리 종단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내실있는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의 교차점에서 북한의 종교현황개관과 불교계의 남북교류에 힘을 쏟고 있는 단체를 우선 살펴보는 일도 그 작업의 하나라 판단되어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연속 소개한다.

북한의 종교, 그리고 불교 현황

흔히 제도교육에서 받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에서 생산되는 국수를 법타스님이 확인하고 있다.

인 방북이 이루어졌다.

1988년 7월 남한출신 승려로는 처음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대원스님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꾸준히 불교계에서도 조선불교도연맹과 교류를 시도하여 해가 갈수록 좋은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1991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민족불교교류추진 미주불교협회 주최로 열린 '남북불교대표자회의'에서 남북불교대표자회담

적인 남북불교교류단체로서는 가장 오래된 단체이다. 창립 이후 미국 LA에 지역본부(대표 도원스님)를 따로 두어, 주로 이 광불협 미주본부를 통한 간접적 대북접촉을 시도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텄다. 현재는 법타스님(전 조계종 총무부장, 전 은해사 주지)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법타스님은 89년 4월과 91년 6월 북한을 방문하여 91년 미국 LA의 '남북해의불교지도자 합동통일기원법회'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 법회는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남과



▲ 최근 방문한 평북협대표단과 조불련관계자가 묘향산 보현사에서 합동법회를 올렸다.

위해 밀가루 360톤(9만불 상당)을 지원하였고, 진각종과 함께 자전거 100여대를 조선불교도연

<표 1> 북한의 종교단체 · 시설 현황

구분	단체	신자수	교직자	종교시설	비고
불교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	1만여명	승직자 300명	사찰 60여개	1988년 이후 성도절, 열반절,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 매년 봉행
천도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교당 800여개		1986년부터 천도교 창도 기념행사 매년 개최
개신교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영섭)	1만여명	목사 30명 전도사 300명	88. 11. 2봉수교회 완공 92. 11 철골교회완공 500여개 가정교회	1988년 이후 성탄절기도회 매년 개최
천주교	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장재철)	800여명	신부 수녀 없음 신자대표 박경수	1988. 10 장충성당완공	
범종교	조선종교인협회의 (회장 강신복)				

*출처 : {북한개요}, 통일원, 1992.

의외로 많다. 하지만 북한에는 종교가 실재한다. 그리고 종교인의 종교의식이 허용되고 있으며 신도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 통일원에서 발표한 {북한개요}(1992년) 자료를 보면 1988년 이후, 특히 89년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 수치는 더욱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89년 6월 이후 1995년 10월말까지 종교분야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184건, 승인 148건, 접촉 성사 37건으로 집계되었다. 1995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4차 기독교국제협의회(3. 28~31)에서 남북한 개신교계 관계자들의 접촉이 있었고, 불교계에서는 베이징에서 당시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간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남북종교인접촉이 있었으며 92년 이후 3년만에 종교

이 성사되었고, 98년과 99년 북측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초청을 받아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고기보다 고기잡는 법을 심는다 -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최근(99. 10. 20일자)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는 92년 2월 송월주스님을 회장으로 창립한,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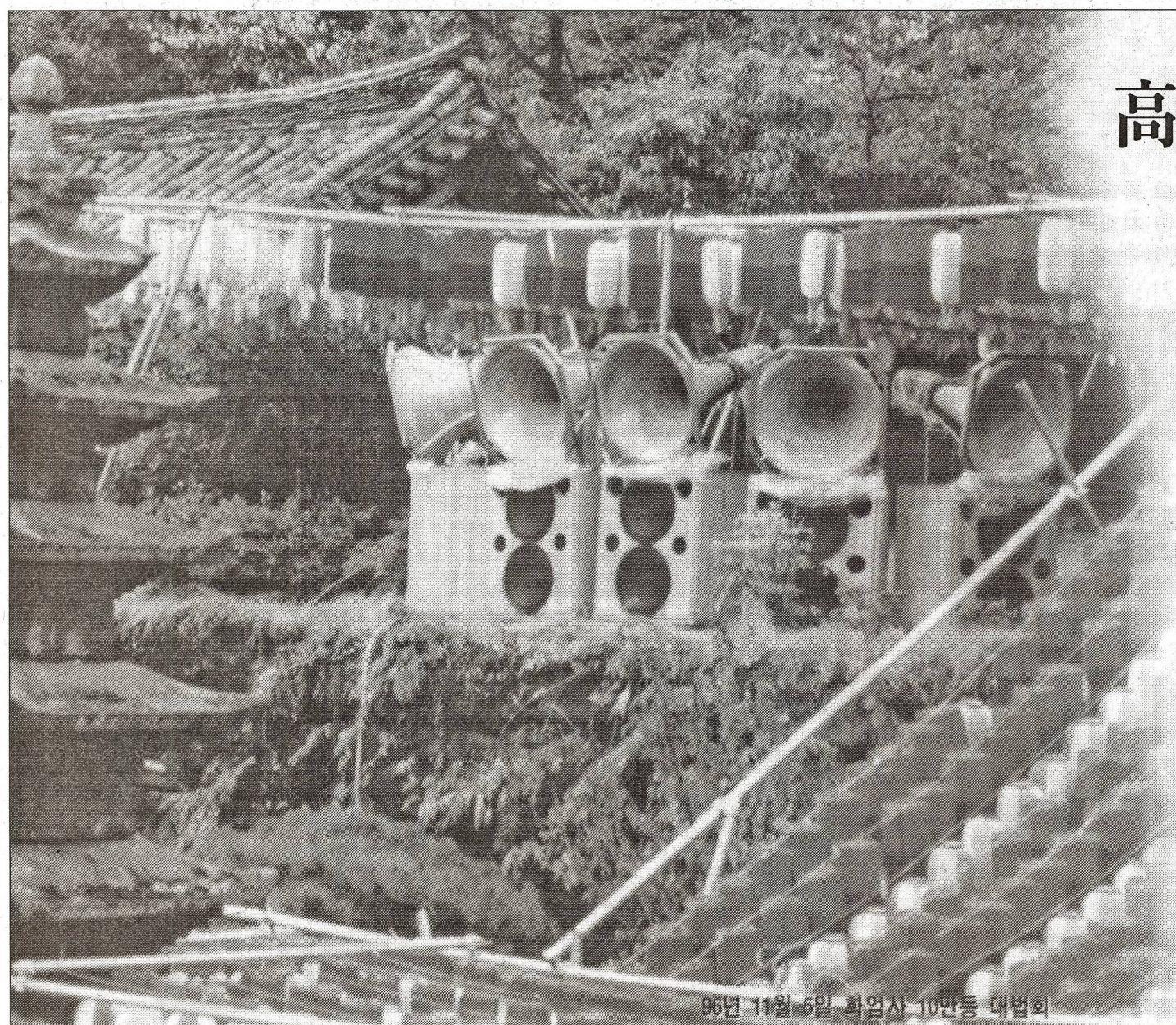
<표 2>

①명칭	금강국수공장	②위치	황해북도사리원시만금동(성불사에서 4km)	③가동일	1998. 4.	④설비	자동화기계 2대 등
⑤생산량	1일 약8천 그릇분량	⑥급식대상	병원, 유치원, 각급학교, 성불사신도	⑦직원	공장장 김유겸, 지배인 리지봉 외 공원 50명 1일 3교대	⑧유관기관	사리원시 당부서 김봉철
⑨규모	1층 밀가루창고	2층 국수공장	3층 국수공장 사무실				

“늦었다는 것이 곧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후발자로서의 장점 살려 앞서의 성과를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 종단 특성 부각하는 통일 사업으로 이끌어 내도록...”

북, 재일본총련, 민단, 재미승려들이 만나 회담과 법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평불협 법타스님은 지난 11월 다섯번째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성사시켰다. 97년말 미주본부 부회장 지현정사를 특사행식으로 방북케하여 조불련과 회담을 갖고, 황해북도 사리원시 만금동에 금강국수공장의 설립을 이끌어내어 주체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곤란에 빠진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결에 전기를 마련케 된 것이다. 97, 98, 99년 총 6차례에 걸쳐 국수공장 가동을

망에 기증하는가 하면 금강산 신계사복원추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교류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평불협은 평양시에 제2 국수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내 평북협 자매사찰을 지정토록 노력하는 한편 2000년에는 관문점을 포함 제3의 장소에서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가 실현되도록 교섭하고 있다. 가동되고 있는 사리원 금강국수공장의 시설현황은 표와 같다.



96년 11월 5일 화엄사 10만등 대법회

高/音/質 - 포교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고장없이 맑고 청아한 소리, 이는 음향의 기본입니다. 거기에 광대역으로 힘있게 내는 것은 전문가의 일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산.

덕 높으신 스님들의 법문소리로서 감동을 주고자 옛선인들은 신심을 연마하고 법당의 음향이 최적이 되도록 천정을 높이고 한창(韓窓)과 포(包)로써 장엄했습니다.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에서 음향기기 설치의 스님네들에게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법사의 목적이 떨리는 세세한 소리는 쇠로 만든 이마에 땀을 내는것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관음음향연구원에서는 법당의 훌륭한 음향설비로 현대포교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해 드립니다.

전문 음향설비 기사에 의한 시설, 설치자문, 음향측정 및 설치, 철저한 A/S관리로 새로운 포교의 장을 마음껏 여십시오.

최고 음향기기를 최소 비용으로 설치 및 대여

첨단 음향장비를 두루 갖추고 음성불사를 합니다.

- 음향기기 설치 : 법당, 경내, 일체, 사무실
- 음향기기 대여 : 각종 실내 문화 행사, 야외 대형 이벤트

관음문화원은 세계 최첨단 음향시스템 Speaker Syste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하시어 소리의 참 모습을 감상하십시오.

(관음음향연구원 별관 시층실 3층)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아갈 방향 (결신)

종립학교 포교활성화 방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단차원의 포교방안 마련 절실



▲ 지난 여름학생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는 종립학교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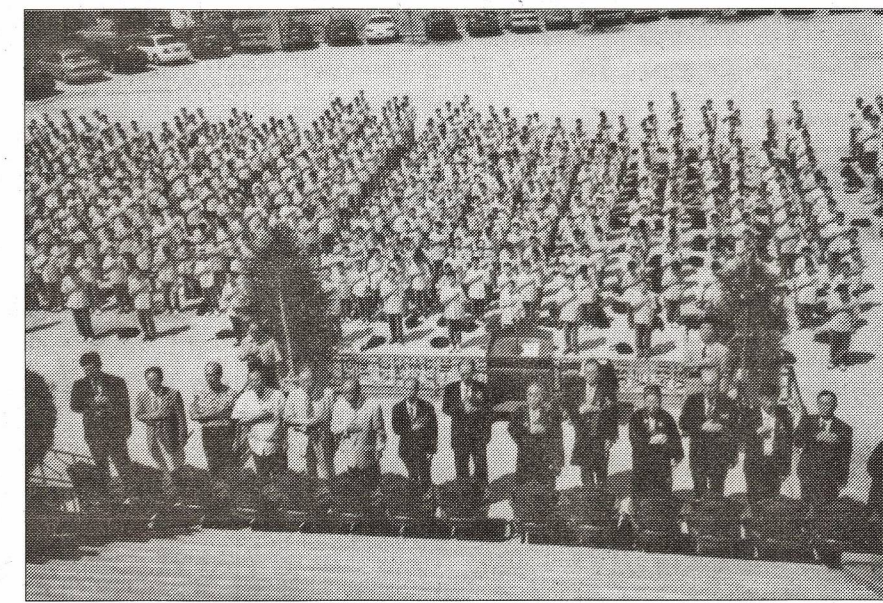
그동안 7회에 걸쳐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중캠페인으로 연재를 해왔다. 이번호를 결산하며 그동안 연재되었던 대안을 요약해서 다시한번 살펴본다.

제9호에서 '미래의 꿈나무 자성학교를 살리자'는 제안을 했다. 요점은 '장단기 계획수립과 종단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를 역설했다.

제11호에서는 '어린이 포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방안으로 독립체계의 자성학교설립과 지속적인 포교활동의 제안이었다. 제12호에서는 '자성학교활성화 방안'으로써 중앙에 어린이 청소년포교

석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포교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제15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원의 자성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방안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기존 자성학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더 좋은 운영방안을 창출할 수 있고,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운영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마지막 제16호에서 '청소년 포교는 어린이 포교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선교사와 예비교사를 어린이청소년 전문포교사로 양성'할 것을



▲ 종립학교에 대한 포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동해중학교의 조희시간 모습.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프로그램개발과 제공, 순회지도,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자는 취지였다. 제13호에서는 자성학교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전국 사원의 자성학교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방안으로 '지도교사양성'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었다.

제14호에서는 자성학교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방안으로, 사원 소재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분

제안했었다. 이들을 통해 초등학생 포교의 선봉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구슬도 깨어야 보배',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하더라도 실천의지가 없으면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사정정 이번호 12면의 '지나호 퍼즐정답' 중 '만청'은 '단청', '사설법'은 '사설법'의 오타입니다.

건강상식

뇌졸중



김내과 의원 원장 김옥희 김내과 의원 (053)792-5115

뇌졸중은 흔히 중풍으로 불려지며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뇌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뇌기능 장애를 말한다.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반신마비, 반측 감각장애, 시야장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귀울림, 어지러움, 구토, 의식장애, 보행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무엇보다 먼저 뇌졸중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빈도가 높은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는 첫째, 고혈압을 들 수 있다.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하, 확장기 혈압이 89mmHg 이하를 정상으로 볼 때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이 95 이상인 경우,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배 이상 증가한다. 또한 고혈압의 심한 정도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빈도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러므로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도 평소 신경 써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당뇨병은 심장관상동맥보다 뇌졸중의 빈도를 1.5배~3배 증가시킨다. 셋째,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

와 혈중지질의 증가도 동맥벽을 두껍게 하여 위험도를 높인다. 넷째, 비만, 특히 복부비만이 위험하다. 다섯째,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부정맥이나 심근허혈, 좌심실비대가 있는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증가된다.

그외에도 가족력이 있을 때, 즉 부모가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 자녀는 위험도가 1.5배 증가한다.

흡연은 뇌졸중 빈도를 2배 가량 증가시키며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위험은 높아진다. 장기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비흡연자와 비슷한 위험도를 갖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과도한 음주 또한 뇌졸중의 위험은 증가시킨다.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뇌졸중의 경우 특히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적절한 약물요법,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이나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훈련도 중요하다.

살며 생각하며

진정한 행복

◀범장원 김진태 연구원▶

하얀겨가 끝난 후 양산은 스승 위산을 찾았다. "한 여름내내 보지 못했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을 하며 지냈나?" "방을 좀 갈아서 수수찌를 뿌렸습니니다." "여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군 그래." "스승님께서는 무얼하고 지내셨습니까?"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하더라도 실천의지가 없으면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진 않았군요." 선(禪)의 깊은 뜻은 우선 제쳐두고라도, 이렇게 고요하고 여유있으며, 또 멀리 있어도 서로 든든한 사랑들이 있는, 이러한 살만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디를 둘러 보아도 너무 시끄럽고 급하고 야단스럽다. 탐심과 진심(眞心)에 별결계 달아 평생을 허둥대다가 살다가는 그런 허무한 세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상하신 스승, 훌륭한 제자. 멋진 삶... 부러운, 참으로 부러운 분들이여...

신행수기 - 사람을 찾습니다

네게 소중한 믿음을 갖게 해 준 은인, 성명자(成明子) 보살님을 찾습니다

성명자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신지, 꼭 한번 만나 보고 싶습니다. 보살님과 인연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전쟁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 피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자리를 제대로 못잡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철길 근처라 폭격에 무너졌고, 마침 그때 서울 와서 공부하던 저의 동생네 집에서 저의 식구들이 살게 되었죠. 동생들은 난리통에 고향으로 내려가고 우리 가족들이 임시로 집을 틀고 살았죠. 그렇시 나는 삼남매를 데리고 그대로 재미나게 살았죠. 보살님에게는 그때 3살 정도 되는 딸이 있었지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 가끔 엄마를 따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에는 여러 집이 살아 있었어도 항상 조용한 편이었죠. 우리 집 골목 옆에는 수돗물이 있어서 아침 저녁 때가 되면 여섯 일곱 가구가 모두 수돗가로 나와 물도 길어가고, 쌀도 씻고, 나물도 씻으며 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 어린 아이들만 지켜보면서 마음이 울적해 있던 터라, 보살님의 말씀은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우연히 보살님이 우리 집 마루에 앉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보살님께서 "아주 좋은 종교를 믿는다고 마음 하나 고친다는게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때 제게는 의지할 뭔가가 필요했던가 봐요. 보살님이 다니시던 곳이 왕십리에 있는 절이었고, 이름은 심인당이라고 하죠. 진언으로 염송하여 자기 허물을 고치는 곳이라 하셨어요.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고 하니 "그럼 내일 아침부터 1주간 함께 다녀보자"고 하셨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준비하고 일찍 대문 밖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1955년 11월 3일이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두 사람은 용산 성남극장 앞에서 만나 울지로 6가까지 1시간 동안 전차를 타고, 다시 내려서 왕십리까지 20분 가량 걸어서 갔었죠. 당도한 곳의 산에 있는 절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큰 건물이었죠. 고단 안에 들어서니 부처님도 안계시고 글씨만

벽에 쓰여져 있고, 고단에는 노보살님 몇분이 불공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성명자 보살님을 믿었으니까 열심히 배워가며 1주간 불공을 했습니다. 자성일에는 설법도 듣고, 49일불공도 하곤 했죠. 불공시간에 지각하면 공덕없다 하여 이른 아침부터 나서곤 했죠. 출근시간이라 짐작을 실은 듯이 비좁은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불공했던 그때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림습니다. 절에 오고가는 길이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했죠. 저는 출산과 산후조리가 남들보다 10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보고, 주사도 맞아 보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침이 납니다. 낮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밤이 되면 제대로 누워 있지도 못하고 이불을 툇 밀까지 뒤집어 써고 앉아서 밤을 꼬박 새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살님이 걱정하며 힘들어 하는 나를 안스럽게 여기셨죠. 하루는 조용히 내 옆에 오시더니 "애기 엄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셨다고 하니 보살님은 "저기 있는 약봉지들을 다 내다 버려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보살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누이, 어린 애기, 또 애기아빠, 5식구였죠. 밤에 식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 우리 집에 오셔서 밤새도록 저를 위해 제 옆에서 7시간 정진불공을 해주셨죠. 부처님께서도 보살님의 정진에 정말 감동하셨을 겁니다. 보살님! 그때 제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태산 같은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의 불공공덕으로 얼마 있지 않아 씻은 듯이 기침은 멎었고, 지

금도 감기라곤 없습니다. 그 정진력을 배웠던 저도 부처님께 불공정진을 한 덕택으로 애기들도 큰 병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살님이 더욱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그때 보살님이 철야정진을 마치고 새벽녘이 되어 가시는데도 제가 불한 모금이라도 대접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이 저러옵니다.

보살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누가 나를 위해 그토록 지극정성 불공해주었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욱 만나보고 싶어 지는군요. 만나면 할 옛이야기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보살님, 그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헤어지게 된 것이 남편의 사업 성공으로 우리 가족들이 부산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얘기가 들어있었고, 부산으로 이사간 후에는 얘기가 넷이 되었습니니다. 부산으로 이사간다는 한 동안 부산심인당에 다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수동에 살때도 보살님이 그곳으로 한 번 찾아 오셨죠. 그때는 제가 산후 얼마되지 않아 정신이 없었던 터라 보살님의 근황을 여쭙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사시는지, 그리고 그때 부산으로 오신 것이 이사를 온 것인지, 아니면 저를 만나려고 일부러 서울에서 내려온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꼭 한번 만나 뵈기를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그리고 지면을 통해 종령님과 전국 스승님들께도 이런 새해인사이지만,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교도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종령님과 스승님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십시오.



▲ 정광행 보살이 부산으로 이사한 후 1956년 어느 가을날, 부민심인당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몸이 아픈 나를 위해 밤새도록 7시간 염송정진을 해주신 보살님..., 만나 보고 싶습니다.

총지중 총지사 정광행 합장. 연락처 : 경기도 분당(0342)515-3670

btn 신임대표이사 본종 효강 법장원장 선임

지난 11월 24일, 허문도 사장 해임 등 만장일치로 통과

불교텔레비전 이사회는 지난 24일 방송국 제2스튜디오에서 제30차 이사회를 개최, 허문도 전 사장 해임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신임 대표이사에 본 종단 효강 법장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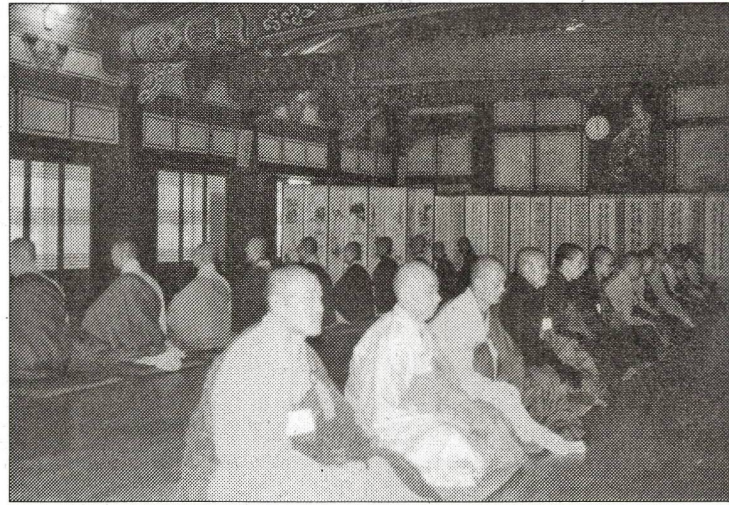
이날 31명의 이사 중 20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지난 29차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허문도 전 사장 해임결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과, 주주총회 소집건을 주요 안건으로 소집되었다.

사장에 취임한 효강 불교TV사장은 곧바로 임원의 해임과 선임, 정관의 일부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지난 12월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어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교계뉴스

중국불교 수행체험단 한국불교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 참선수행과 송광사 마곡사 등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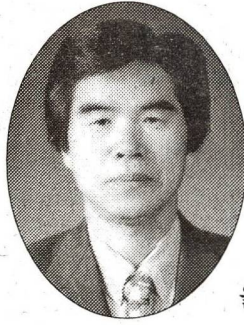
▲ 중국불교 수행체험단이 송광사에서 '선수행'을 하고 있다.

중국불교 수행체험단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 행사는 한중일 3국불교우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지난 98년 한국 수행체험단 12명이 중국불교협회의 초청으로 중국 복건성 광화사에서 10일간 수행체험을 한데 이어 양국

간 교류차원에서 이번에는 한국종단협의회가 중국불교수행체험단을 초청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 묘강 법사를 단장으로 한 14명의 중국불교 수행체험단은 첫날 송광사의 입제식을 시작으로, 전통 수행과 금산사 마곡사 관문으로 중국 복건성 광화사에서 10일간 수행체험을 한데 이어 양국

동해중학교 신임교장 프로필

“동해중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 강정중 교장

지난 9월에 부임한 강정중 신임 교장은 그 동안 업무와 과업을 통하여 동해중학교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강교장은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의 학교 사정을 살펴본 바 교사의 자질이나 수업내용, 그리고 연구 업적 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교무 환경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다고 했다. 우선 특별활동을 하기 위한 교실부족과 교무실 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증축과 확장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또한 도서관이 협소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향후 열린 교육의 심장부가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종립학교이니 만큼 불교, 특히 밀교를 상징할 만한 조형물의 건립도 구상 중이며 이를 통한 학생들의 정신 순화에도 치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교훈과 교복, 학교 로고 등을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행정면에서 무엇보다도 인화단결을 중시하여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불식하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긴밀한 상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를 활성화하여 교무 행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학교 활성화 방안의 포부를 밝혔다. 얼마전 컴퓨터 대량구매시 위원회를 구성, 담당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것 등도 이러한 구상의 하나라고 했다.

◆ 강정중 교장 약력

- 1942년 경남 밀양 생
- 동래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 심리학과 졸업
- ROTC 장교 제대
- 부산시청 근무(1968-73)
- 중등학교 국어 1급 정교사(1980년)
- 우수공무원 공로표창
- 국민교육헌장 유공표창
- 경로효친 유공표창
- <저서>
- 어린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 고해를 건너는 뗏목의 다수



▲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혜숙)는 '21세기를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6일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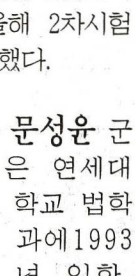
<교도가정 사법시험합격자 인터뷰>

지난 11월 27일 총지종에는 경사스런 일이 있었다. 본종 서울 총지사(주교 총지화) 교도 이상철(58세) 각자와 박상연(53세) 보살의 자녀 이완형 군, 인천 천 부평 정혜서원당(주교 지성)의 교도 문성운(58세) 각자와 노진숙(50세) 보살의 자녀 문성운 군이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기 때문이다. 이들 합격자와 부모님을 직접 만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완형 군

은 1992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7년 졸업했다. 고시 공부 는 대학4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1차시험에 3번을 응시, 지난 98년 2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2차 시험에 응시, 최종 합격했다.



문성운 군

은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1993년 입학, 98년에 졸업했다. 고시 준비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시험정보를 수집하고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차 시험은 이번 시험을 포함, 4번 응시하여 2번 합격 했고, 올해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 합격소감은?
이 - 우선 주위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 -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효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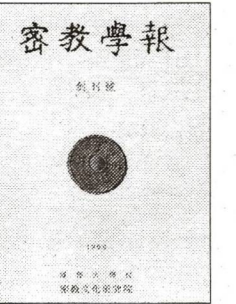
▶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 - 여러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에 매진하는게 제일 어려웠고,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과 주위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문 - 심리동 고시촌에서 고시 준비를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었습니다.

▶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
이 -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한 휴식을 취했고,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밀교학보’ 창간호 발간,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한국 최초 밀교학 논문집, 밀교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열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원장 김무생 불교학과 교수)에서는 개원 2주년을 맞아 한국 최초로 밀교학 논문집 ‘밀교학보’를 창간했다. 논문집은 ‘육자진언의 상징적 의미’를 비롯한 7편의 논문과 범천밀교경전목록, 한국밀교자료목록, 한국밀교문화재목록, 초기진각종사년표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 밀교학보

습니다.
문 - 집중력을 높히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로 시험출제경향에 맞추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이 - 우선 연수원에서 열심히 배운 뒤 사회에 나가서 사람과 은혜를 입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문 -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합격자 부모님을 만나서>

▶ 부모님의 소감은?
이 - 먼저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있게 한 저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 - 바라던 바대로 이루어져서 기쁘고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뒷바라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 - 경제적인 뒷받침이 부족했

던 점이 제일 힘들었고, 본인의 의욕상실이나 시험포기가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문 - 경제적인 면에서 뒤바라지하는데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 시험을 위해 특별히 드린 불공이 있다면?
이 - 아들이 법대에 입학할 때부터 시험에 대한 불공을 해왔습니다. 평상시 마음을 항상 시험에 대한 서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 전에는 100일불공을 하면서 쌀1가마를 하루 1되씩 불전에 올렸습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인만큼 진호국가불공을 매일 올렸습니다.

문 - 특별히 한 것은 없고, 정혜서원당 지성 정사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아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대로 열심히 불공만 했습니다. 하루도 불공을 게을리 하지 않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신청 (02)564-9294

특별기고

총지종과 만다라

최성규 교수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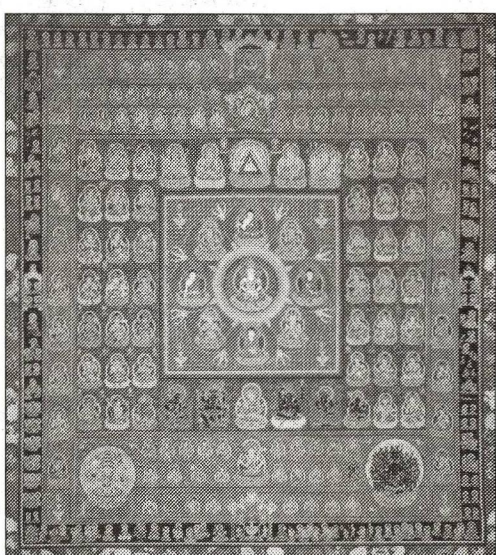
한국불화의 오랜 전통 속에서 만다라적 도상 요소를 모두 점검하여 교의적 근거에서 재구성하는 주체적 노력 필요.



▲ 최성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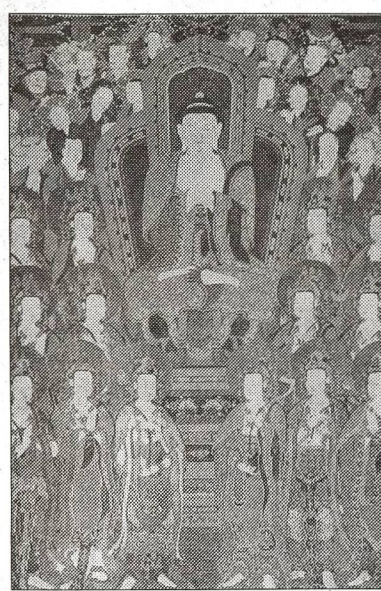
한국의 정통 밀교 종단인 총지종의 모든 의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금강·태장양계 만다라를 조성하여 모시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불사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원정 종조님의 교시에도 나타나 있으므로 그 당위성을 지금에 와서 논할 계는 이미 아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 내야 할 불사라 하겠다.

만다라에서 선(線)과 색(色)으로 나타난 도상과 색채는 단순히 감상 위한 것이 아니라 대일야래를 중심으로 완성된 성역공간 속에 자기를 몰입함으로써 성숙일치(聖俗一致)의 경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만다라 안에 제존(諸尊)과 함께 나타나는 색채도 밀교에서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강조성을 강조한다. 즉 색채에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시켜 이것을 상징형 태로 삼아 감각을 통해서 실재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 태장계 만다라

다시 말해 밀교는 자기를 무시하고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신앙이라고 보다,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활용함으로써 성숙일치(聖俗一致), 불범일여(凡凡一如)의 체험을 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분석적 이해가 아닌 직관적인 파악으로 불(佛)의 경계에 즉입(即入)하는 것[즉신성불(即身成佛)]이 밀교 특색의 하나이다. 그래서 만다라라는 생명



▲ 비호자니불 회도

이 넘치는 세계로 이루어진다. 만다라 조성이 이런 교의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이라는 장소성을 무시하고 수입하듯 들여와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불화의 오랜 전통 속에서 만다라적 도상 요소를 모두 점검하여 교의적 근거에서 재구성하는 주체적 노력이 있을 때 한국불교 회화 사상 조류의 대작불사(大作佛事)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상담소 개설

불교총지종 전국 신도회 경인교구지회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던 신도 유료, 무료, 양로원 설립을 위해 신도 자녀 성혼시키는 일(결혼상담소)을 설치하여 양로원 기금 조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혼을 위주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본 상담소는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할 것을 부처님께 맹세하며 선남·선녀들에게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남녀들의 "새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드리고 크게 보람을 느끼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요령

- ◇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청란에 인적사항을 기재, 사진을 꼭 첨부
- ◇ 소정의 입회비와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초본)를 제출후 상담
- ※ 상담을 마친후에는 희망하시는 배우자를 빠른 시일안에 보실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이런분은 받지 않습니다

- ① 고체나 펜팔을 원하는 분
- ② 뚜렷한 직업이 갖지 않은 남자분
- ③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남자분
- ④ 신병이 있는 남
- ⑤ 허황된 사고방식으로 배우자를 택하려는 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전화: (02) 553-0770 / 팩스: (02) 552-1082

불교 총지종 전국신도회 인미음 결혼상담소

인물탐방

한국불교학 연구의 산실, 한국불교학회 신임회장을 찾아서...

한국불교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목정배 교수



한국불교 연구의 산실, 한국불교학회의 신임회장에 동국대학교 목정배 교수가 지난 11월 19일 본 학회 99년도 정기 총회에서 취임했다. 동국대학교 부설 불교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목정배 박사를 만나 여러 가지 교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먼저 한국불교학회 회장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불교학회의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불교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충실한 학문연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양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학의 활성화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수가 참여하는 개방된 학회, 생기있는 학회를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불교문화연구원장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초에 대중적인 불교학술지가 출간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동안 학술지는 대부분 전공자들만을 위한 것이지요. 이제는 불교도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중학술지 '미래와 불교'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연환경문제, 공해문제, 원자력추출문제 등 과학의 파괴현상을 불교에서 그 해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 시각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오히려 오늘날 더욱 사회문제해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과학



▲ 한국불교학회는 매년 논문발표를 통해 불교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사진은 한국불교학회의 발간논문집인 『韓國佛敎學』

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자연과 인간에 대한 황포인가? 하는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미래와 불교'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학문으로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연구자의 고심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는 본인에게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논문의 경우도 노력과 고심의 흔적이 있는 만큼 설득력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낸 논문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학문자세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동일논문이라도 계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문자세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자세가 연구자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스스로 비판하고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학자입니다.

BBS 소식

송년특집프로 기획 편성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올해의 송년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했다. 방송은 12월 27일에서 31일까지 편성된다. 송년특집프로그램은 '송년특집 아듀 1999' (방송일시 12월 27일~31일 오전 7시 15분~8시, 8시 30분~9시) '송년특집 거룩한 만남-소리없는 사랑, 감동의 밑물' (12. 31. 오전 9시~9시 55분) '송년특집 저무는 한해, 행복한 사람들' (12. 29~31. 오전 11시 10분~11시 50분) '새천년 특집 99트롯결산' (12. 30~31. 오후 12시 20분~1시, 1시 5분~2시) '송년특집 퀴즈로 풀어보는 불교백년' (12. 27~31. 오후 2시 10분~50분) '보도특집 20세기, 20대 사건을 결산한다' (12. 27~31. 저녁 6시 15분~7시, 7시 10분~8시) '송년특집 BBS가요제' (12. 31. 저녁 8시 5분~9시, 9시 10분~10시) '송년특집 백 투 더 무비' (12. 27~30. 저녁 8시 5분~9시) '7시간 특별생방송 새천년, 불교방송과 함께' (12. 31. 저녁 8시 5분~2000년 1. 1 새벽5시)등이다.

btn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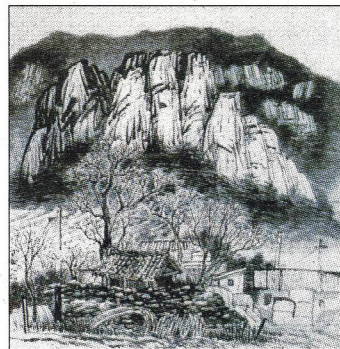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개최

불교TV(대표이사 효강)는 지난 14일 오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후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결의했다. 결의사항은 이사해임과 신임이사 영입건이었다.

전시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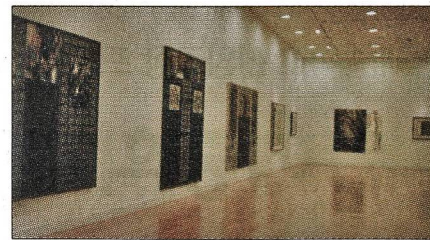
최성규 교수 작품 초대전 성료

지난 11. 28~12. 7. 한전프라자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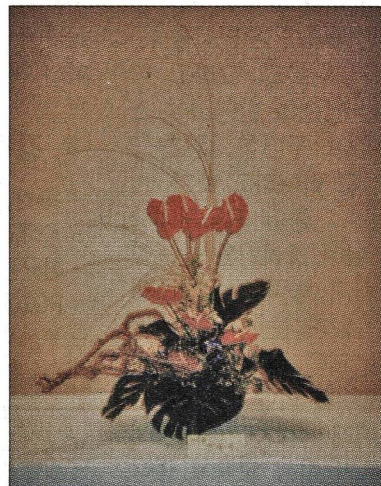
▲ 작품:주왕산에서 ▶ 전시장전경

본 종단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최성규 교수(경북대 회화과)의 개인전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 명동 한전프라자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치뤄졌다. 전시회에는 최교수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됐고, 주로 산수화와 만다라적 기법의 작품이었다.



꽃 축제 전시회 작품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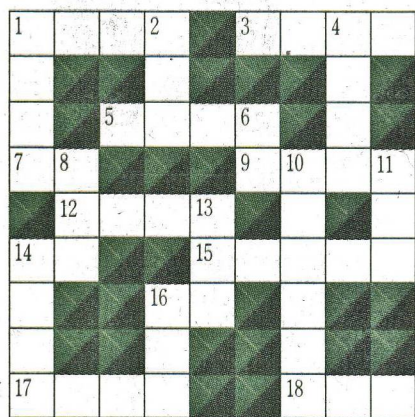
대구 달구벌 축제에...



경주 국공사 정일해 전수는 (사)서라벌꽃예술회가 지난 10월1일부터 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 '제18회 달구벌 축제 꽃 전시회'에 꽃꽂이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정일해 전수의 작품은 균형과 조화를 가장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일해 전수의 꽃꽂이 작품

충지 퍼즐마당



가로글씨

1)부처님과 중생의 삼밀이 합일하는 경지. 3)많은 수를 나타냄. 부처가 설한 교 및 그 뜻이 많은 법문. 5)고종3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7)지옥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9)눈 위에 서리가 덮힌다는 뜻으로 불행한 일이 거듭 일어남을 비유. 12)'18나한

의 17번째. 14)기린의 뿔. 희유한 사물에 대한 비유. 15)중국 동진때 승려 혜원, 신라의 원효, 중국의 법상이 서술한 논문. '000삼소' 16)도구 장비의 다른 말. 17)불법을 수호하는 여덟신장. 18. 000 법등명.

세로글씨

1)육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다시 9지로 나눔. 2)금강계의 대일여래의 인상. 독립법계의 상이라고도 한다. 4)身出家, 心不出家, 身在家心出家, 身心俱出家, 身心俱不出家. '사유00'. 6)사무의변의 하나,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 상응한 교법을 하기에 능수능란함. 8)합천 해인사에 대장경을 보존하는 당사. 10)광속과 비교될만큼의 속도로 운동하는 입자. '0000 입자'. 11)일정한 일에 관하여 묻고 의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13)자석이나 전류 주위에 발생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장소. 14)사람

이 살고 죽음이 모두 하늘에 매어있음을 뜻하는 4자성어. 16)중생 마음속의 정보리심을 뜻함. 금강계 5부의 하나, 또 태장계 3부의 하나.

▼ 지난호 충지퍼즐 정답



* 2000년 1월 31일까지 충지중보 퍼즐마당 담당자 앞으로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추천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충지중보법정원내 충지중보사

신간안내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하버드대학 출신의 미국인 스님이 진리를 향한 자신의 끝없는 구도정신과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을 책으로 펴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화계사의 현각스님이 펴낸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가 그것. "나는 오직 진리를 찾기만을 원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었다. 또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야만 한다면 그 역시 좋은 일이었다. 내가 찾은 것의 바깥 모양에는



개미치 않았다. 진리를 찾는 일만이 중요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끝없는 회의와 의문 속에 그가 찾은 것은 바로 "모든 진리가 마음 속에 있다"라는 불가의 가르침이었다. 그의 글을 시나브로 읽어가다보면, 진리는 일상을 떠나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최민희 기자> (열림원출, 현각 지음, 전2권, 각권 7,000원)

天然玉石 귀빈자리



천연옥석 귀빈자리는 원석의선 방사율을 높이기 위해 천연옥광석을 원형으로 박아 특수공법으로 2223개를 손수 엮어 정성껏 만들었으며, 보석광택을 받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사계절용

유의 효능

옥(玉)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던 귀한것으로 여름에 시원하고, 열전도율이 높기 겨울에는 보온 효과가 뛰어나며, 기를 증기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며, 면역성을 높여주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한다. 또한 기의 분배가 좋아지므로 스트레스성 외복에 좋고, 심근작용 및 노폐물 배출로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따라서 옥에서 발생하는 기는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옥비녀, 옥베개, 옥가락지, 옥팔찌등 건강 장신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는데 옥의 특별한 효능은 이미 동의보감(東醫寶鑑)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등 옛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천연옥석 모시베개



▲ 보석감정서



▲ 침대면, 안방, 거실등에서 사용하세요~

天然玉石 귀빈자리

최고의 잠자리를 위해 기술과 고집으로 만든 최고의 제품!!

이런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 잠을 자고나도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깊은 잠을 못자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분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험생이나 직장인
○ 나이드신 부모님, 연약한 아내에게
○ 평소 고마우신 분이나 존경하는 분에게

HANA Hana Health Life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3-12 청우빌딩 2층
TEL : (02)558-0040(대)
FAX : (02)558-0063